

철 든 마음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철에 사랑을 더하면 도시는 얼마나 멋있어질까요?
철에 사랑을 더하면 생활은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철강기업 세아,
철에 대한 사랑으로 꼭 찬 사람들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다.



세아홀딩스 세아제강 세아베스탈 세아특수강 한국번디 세아 ESAB 세아메탈 세아 M&S 세아네트웍스 세아로지스

SēAH

세 아 가 조
세 상 을 아 름 담 게 하 는 사 람 들

1947-2013
故 이운형 회장 추모 특집



03+04
MAR + APR 2013

세아+가조 2013 03+04

SēAH

CONTENTS

MARCH + APRIL 2013
VOL. 344



“철과 같은 마음으로”

〈세아가족〉통권 344호 2013년 03+04호
발행일 2013년 4월 22일 발행인 김진규 발행처 세아홀딩스
기획·편집 세아홀딩스 02-6970-0093
디자인·제작 대통기획 02-2269-3613
※외부 필자의 글은 〈세아가족〉의 편집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세아가족〉
웹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故 이운형 회장
추모 특집

04	특별기획	세상을 아름답게 한 별이 지다
06	특별기획 1	철과 같은 마음으로 아름답게 살았던 삶
10	특별기획 2	부드러운 카리스마, 글로벌 철강기업을 세우다
14	특별기획 3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한 휴머니스트
16	빈소 현장	끊이지 않는 추모의 물결
18	영결식 현장	철강계의 신사를 떠나보내다
22	추모의 글	이운형 회장을 애도하다
23	조사	이구택 前 포스코 회장 박수길 한양대 음대 명예교수 김진규 세아홀딩스 대표
26	추모 기사	언론에 보도된 추모 기사 모음
30	추모 서신	각계각층에서 도착한 추모의 물결
32	이운형 회장 메시지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남긴 한마디
34	이운형 회장 유품	이운형 회장의 흔적이 묻어 있는 유품들
38	이운형 회장을 회상하다 I	박영주 이건산업 회장 손봉락 TCC동양 회장 김하중 前 통일부 장관 김의준 국립오페라단 단장
42	이운형 회장을 회상하다 II	SeAH Steel UAE 김석일 법인장 세아제강 조운삼 상무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사무국 고일섭 팀장 세아제강 인사운영팀 이충원 사원
46	이운형 회장을 회상하다 III	세아홀딩스 이태성 상무
48	이운형 회장을 기리다	‘님로드’를 위한 팔스타프
50	이운형 회장 사진 모음	아름답게 살았던 삶

HIGHLIGHT
SeAH

52	SeAH'S CORE VALUES	세아 핵심가치 ‘정직’ ‘열정’ ‘실력’
56	FOCUS	제5기 챌린지 리더 수료식
58	HOT ISSUE	세아네트웍스, 탄소 제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다
60		세아베스틸, 제21회 국제 금형 및 관련 기기전 참가

HIGH-FIVE
SeAH

62	SeAH NEWS	세아뉴스
65	SeAH PEOPLE NEWS	사우동정
66	EPILOGUE I	에필로그
67	EPILOGUE II	당신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이운형 회장은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정도경영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혜성처럼 나타나 유성처럼 사라져가는 산업사에서 반세기 동안 탄탄한 세아를 일궈냈습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으로 일찍이 수출을 도모하여 치열한 해외 선진 시장에서 품질과 가격 경쟁력으로 차별화를 도모하였고, 산업사의 중요한 변화 시기마다 모범 답안을 내놓으며 50년 이상 건실한 기업을 일구었습니다.

특별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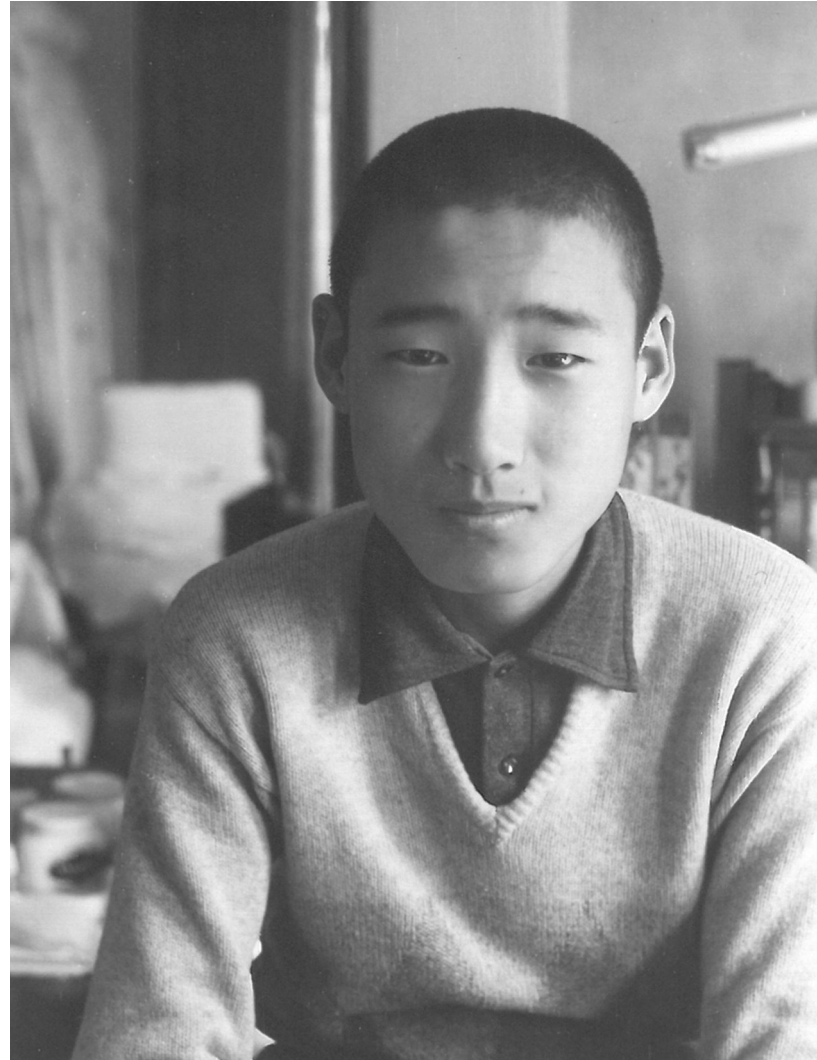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 ① 철과 같은 마음으로 아름답게 살았던 삶
- ② 부드러운 카리스마, 글로벌 철강기업을 세우다
- ③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한 휴머니스트

1996년 만들어진 사명, '세아'에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이운형 회장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드러나지 않고, 알아주지 않더라도 감사와 겸허의 자세로 묵묵히 공존과 상생의 철학을 실천한, 진정한 휴머니스트. 그는 차가운 철에 따뜻한 온기를 더해 우리가 사는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오랜 시간 국립오페라단을 비롯한 크고 작은 예술 단체를 후원하며 세아를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기업으로 이끌었고,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을 통해 형편이 어려운 젊은이들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에는 이운형 회장의 '철과 같은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그는 많은 혜택을 주면서도 결코 변치 않는 철과 같이 한결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였습니다.

강하지만 유연하게, 단단하지만 부드럽게 66년을 살아가신 이운형 회장의 올곧은 정신이 '100년 기업을 향한 세아'에 뿌리 깊게 새겨질 것입니다.

철과 같은 마음으로 아름답게 살았던 삶



故 이운형 회장을 아는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겸손한 성품을 갖춘 온화한 리더’라고 평가한다. 드러냄 없이 꾀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본인의 책무를 다한 그의 삶은 ‘감사’와 ‘겸허’ 그 자체였다. ‘철강계의 신사’로 불린 故 이운형 회장의 생애를 돌아보고, 세아인이 잊지 말아야 할 기본 덕목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의젓한 장남이자 효심 지극한 효자

이운형 회장은 1947년 부친 해암(海巖) 이종덕 창업 회장과 모친 박월선 여사의 2남 4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유교적인 성향이 강했던 당시, 오랫동안 기다린 첫 아들로 태어난 이운형 회장은 집안의 많은 기대와 사랑을 받으며 유년기를 보냈다.

이운형 회장은 생계에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동생들을 보살피고, 위아래 형제들을 세심하게 챙기는 등 어린 나이에 의젓한 장남의 역할을 다했다.

평생을 근검으로 일관하며 기본과 원칙을 중시했던 부친 이종덕 창업 회장의 영향으로, 이운형 회장은 자연스럽게 정직과 성실, 겸손한 자세를 몸에 익히며 성장할 수 있었다. 어린 시절 선친에게 배운 ‘감사’와 ‘겸허’의 마음은 이운형 회장이 평생 중요하게 생각한 덕목으로 뿌리를 내렸다.

이운형 회장은 부모에게 정성을 다한 효자이기도 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독교에 귀의했을 무렵, 이운형 회장은 일요일 아침마다 직접 차를 운전해 부모님을 교회에 모시고 다녔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는 그날의 설교에 대해 이것저것 물으며 부모님이 심심하지 않도록 배려했다.

이운형 회장은 직원들 중에서도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연로하거나 노환이 있는 부모를 모시는 직원의 이야기를 들으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참 잘 한다, 효자네” 하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

이런 일화는 평소 이운형 회장이 가지고 있었던 가족애와 효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에, 듣는 이의 마음을 더욱 훈훈하게 한다.





튼튼한 울타리와 같은 남편이자 아버지

이운형 회장은 학창 시절 테니스 선수로도 활약했을 만큼 운동신경이 뛰어났다. 미대를 나온 숙부와 한국무용을 전공한 누이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예술을 접하며 성장한 이운형 회장은 수학과 과학에도 두각을 보였다. 이운형 회장이 가진 예체능적 감수성과 기술에 대한 이해는, 대학 진학에서 예술과 과학의 경계선에 위치한 건축학과를 선택한 결정적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1학년 재학 시절, 이운형 회장은 누나의 소개로 이화여대 1학년에 재학 중이던 박의숙 여사와 만나게 된다. 양가의 허락을 받고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한 두 사람은 빵집이나 다방, 남산 등지에서 대화를 나누며 당시 연인들과 다를 바 없는 소소한 데이트를 즐겼다. 이운형 회장은 자신의 마음을 시나 팝송 가사를 적은 편지로 표현했으며, 박의숙 여사는 부모님 몰래 이운형 회장을 만나러 가는 등 두 사람은 낭만적이고도 뜨거운 연애를 했다. 스무 살 때 서로의 첫사랑으로 만나 평생을 동반자로 보낸 두 사람은 이운형 회장이 ROTC로 복무했던 시기에 약혼을 하고, 전역과 함께 결혼식을 올린 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이운형 회장은 미시건대학에서의 유학 생활을 특별하게 기억했다. 미시건에서 첫째와 둘째를 출산하면서, 학생이자 초보 아빠로 학업과 육아를 병행해야 했기 때문이

다. 학기 중에는 공부와 육아로 바쁘게 보내고, 방학이 되면 허름한 차를 타고 가족 여행을 떠나는 등 이운형 회장은 미국에서의 생활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단란했던 시간으로 추억했다.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던 1970년대 중반은 석유파동과 중동 개발 등이 일면서 정부의 산업정책이 본격화되고 수출을 장려하던 시기였다. 유학 후 본격적으로 경영활동에 참여해, 1980년 서른셋의 젊은 나이로 시장에 취임한 이운형 회장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러나 잦은 출장과 격무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 자녀들과 운동을 하는 등 많은 추억을 만들어 주었으며, 가족 기념일은 잊지 않고 챙겨 남편·아버지의 정을 느낄 수 있게 했다.

이운형 회장은 박의숙 여사가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자, 든든한 울타리와 같은 존재였다. 그래서 박 여사는 이운형 회장을 “아버지이자, 오빠이자, 남편이었다”고 회상한다. 장남 이태성 상무는 “어떤 이야기든 나눌 수 있는 친구 같은 아버지”였으며 “매년 결혼 기념일이 가까워지면 어머니께 드릴 깜짝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많이 고민하셨는데, 그 모습이 마치 수줍은 소년 같았다”고 말한다.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버지로, 이운형 회장은 가족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행복을 준 사람이었다.

철과 같은 마음으로 아름답게 살았던 삶

이운형 회장은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으로 요란하게 드러내는 것을 꺼려해 왔다. 2012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언론과 공식 인터뷰를 가진 것도, 세아그룹이 규모나 위상에 비례해 일반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점도 그의 평소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는 다양한 대외 활동에 참여하면서도 회장직은 한사코 거절했으며, 직책을 맡게 되면 부회장이나 총무의 역할로 뒤에서 말없는 지원을 보냈다. 그래서 지인들은 “이운형 회장은 드러낼 줄도 나설 줄도 모르지만, 돌아보면 언제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이운형 회장은 생전 인터뷰에서 “철과 같은 마음, 이것은 겸손한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철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면서도 항상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

했다. 이운형 회장의 인생은 ‘철과 같은 마음’으로 살았던 아름다운 삶이었다. 그리고 그 근간에는 언제나 ‘감사’와 ‘겸허’가 흐르고 있었다. IMF를 비롯한 수많은 위기 속에서 단 한 번의 구조조정도 실시하지 않았던 기업인으로서의 책임감, 눈을 감기 직전까지 일주일에 네 차례씩 조찬 모임에 참석한 열정적인 배움의 자세, 가와사키 제철(현 JFE스틸)의 이바라기 부장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겨 매년 기일마다 꽃을 보냈다는 일화도 우리의 고개를 숙이게 한다.

故 이운형 회장은 철과 같은 마음으로 가족과 지인, 직원과 고객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아낌없이 표현했다.

故 이운형 회장이 일생동안 보여준 ‘감사’와 ‘겸허’의 가치는 세아인이 잊지 말고 이어가야 할 아름다운 덕목이다.



부드러운 카리스마 글로벌 철강기업을 세우다



故 이운형 회장은 우리나라 철강 산업을 주도한 숨은 주역이다. 1980년 강관업계 최초로 1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여 대한민국 산업화의 초석을 다졌다. 튼튼한 체질의 기업을 만들기 위해 때론 카리스마 있게,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때론 온화하게, 말은 바 소임을 다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 앞장선 어른. 그가 걸어온 발걸음을 되짚어 앞으로 나아갈 바를 가슴에 새겨본다.

시대를 앞선 리더, 21세기를 준비하다

이운형 회장은 1974년 부산파이프(현 세아제강) 이사로 입사하여 1980년 사장으로 취임했다. 혼란의 연속이었던 70년대가 지나고 격동의 80년대가 왔으니, 대표로서 짊어져야 할 부담과 책임감이 클 수밖에 없었다. 경영의 큰 분기점이었던 상황에서 ‘이운형 사장 체제’는 시작되었다.

이운형 회장은 젊은 패기와 유연한 사고를 가진 ‘시대를 앞선 리더’였다. 그는 대망의 21세기를 준비하며 진보적이고 선도적인 조치를 취했다. 사장 취임 직후 회사의 제안제도가 크게 활성화하였다.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 포상하도록 하여 직원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는데, 이렇게 얻어진 아이디어는 183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냈다. 한 사람의 똑똑한 머리에 의존하는 것보다 다수가 함께 머리를 모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말한 이운형 회장의 생각이 맞아 떨어진 것이다. 또한 날로 늘어나는 업무와 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도입해 업무 전산화에 큰 진전을 가져왔다.

무엇보다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이운형 회장은 사업의 전문화와 다각화를 추진하며 세아의 역사에 있어 중

대한 전환점을 마련하기도 했다. 세아제강의 포항 1공장이 본격 가동되면서 괄목할 만한 매출 신장을 이루었고, 이후 소경, 중경, 스파이럴, 고급 대구경, 스테인리스 강관 전문 공장이 차례로 세워지면서 강관산업의 중심에 설 수 있게 했다.

또한 세아 최초의 합작법인인 한국번디가 본격적인 제품 생산에 들어가고, 세계적인 특수 용접재료 메이커인 ESAB 사와의 합작법인 세아 ESAB을 출범시키며 수입에 의존하던 소재의 국산화에 성공하였다. 자동차 부품 필수 기초 소재인 고급 선재제품의 국산화를 실현한 세아특수강도 이 시기 그 전신이었던 창원강업 인수가 이루어졌다. 해외 네트워크 확장에도 활기를 띠면서 내수 확대와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이 이어졌다.

이운형 회장은 국가 기반 산업이 취약한 시절, 철강소재의 혁신과 발전을 견인하며 세아를 한국의 대표적인 철강소재 전문 기업군으로 발전시켰다. 1981년 강관업계 최초로 ‘1억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한편 정부로부터 ‘금탑산업훈장’을 수훈한 것,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서두르지 않고 꾸준히 내실을 다진 끝에 지금의 업계 선도기업에 자리한 계열사들의 경쟁력이 그에 대한 방증이라 할 수 있다.

이운형 회장은 젊은 패기와 유연한 사고를 가진 ‘시대를 앞선 리더’였다. 국가 기반 산업이 취약한 시절, 철강소재의 혁신과 발전을 견인하며 세아를 한국의 대표적인 철강소재 전문 기업군으로 발전시켰다.



세아그룹, 국제 흐름에 발맞춰 진일보하다

WTO 체제의 출범에 따라 세계의 경영환경이 크게 변화했는데 이때 부산파이프도 그룹 체제로 전환하였다. 1995년, 이운형 사장이 그룹 회장으로 추대되었고 국내외 22개사가 그룹 계열사에 속했다. 이때 만들어진 ‘세아’라는 사명에는 ‘세계로 도약하는 아시아의 일류 기업’이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 수출 시장 확대 및 국제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이운형 회장의 도전의식을 표방한 그룹명인 것이다.

이운형 회장은 그룹 체제로의 변화, 사명(社名)과 CI의 변경 등이 새롭게 바뀐 이 시기에 기존의 보수적인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했다. 또 새로운 비전 제시로 사원들의 의욕을 북돋우고, 경영다각화를 실시한다면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실제로

흘어져 있던 전 계열사가 하나의 그룹으로 연결되면서 인사 교류나 업무 협조도 훨씬 활발해졌고, 기업문화가 정착되기 시작했다. 세아그룹의 탄생으로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그룹의 탄생과 함께 이운형 회장은 변화와 혁신의 전략을 강화했다.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철강분야에 합리적인 투자와 적극적인 사업다각화를 계속해서 시도했다.

도전, 기념비적인 성취를 낳다

이운형 회장은 지주회사제를 도입하는 데도 남보다 한 발 앞섰다. 2001년 세아제강(제조전문회사)에서 세아홀딩스(투자전문회사)를 분할해 지주회사를 세운 것은 국내 대기업 가운데에서도 단연 선발주자 격이었다. 지주회사제 도입으로 세아제강은 자체 사업에만 집중하여 경쟁력을 키웠고, 세아홀딩스는 신규 사업을 발굴

하는 등 새로운 성장 원동력을 만듦으로써 자회사의 사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전문화시켰다. 순수 지주회사로 새롭게 탄생한 세아홀딩스는 2001년 한국거래소에 상장, 기대 이상의 주가를 형성하여 기업 분할이 성공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업 분할 후 가장 괄목할 만한 업적은 기아특수강(현 세아베스틸)의 인수다. 조 단위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던 기아특수강은 1997년 IMF와 맞물리면서 법정관리 기업으로 전락했다. 많은 사람들이 기아특수강을 회생 불가능한 기업으로 여겨 공매 입찰 참여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이운형 회장은 특수강 사업이 국가기간산업으로 반드시 필요하며, 철강사업자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하여 인수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입찰 과정에서 경쟁자에게 우선 협상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지만, 이운형 회장의 일관되고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으로 많은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데 성공하며 기아특수강을 세아의 품에 안는 데 성공했다. 인수 후에도 투명하고 원칙적인 경영을 접목하여 만년 적자 기업을 불과 1년 만에 흑자 기업으로 탈바꿈시켰다.

기아특수강의 인수와 투자는 세아그룹의 사업 확장과 균형형을 이루는 큰 밑거름이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규모 기업집단 34위(2011년 기준, 공기업 제외),

매출액 6조4,656억 원(2011년 기준, 국내 기준)을 달성함으로써 세아 경영사에 기념비적인 성취를 남겼다.

‘정직, 열정, 실력’ 100년 기업을 향한 메시지

이운형 회장은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세아를 지휘한 훌륭한 수장이었다. 지주회사제 도입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고,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한 내실 경영과 합리적이고 성공적인 투자로 세아를 재계 50위권의 글로벌 철강기업으로 끌어올리며 세아의 지속 가능한 발전 토대를 구축했다.

2012년 12월에는 52년 만에 그룹 통합사옥인 세아타워에 입주하면서 각 계열사의 화합과 소통, 통합 시너지의 토대를 마련했다. 현재까지는 세아그룹의 새로운 체제를 만들고, 100년 기업을 향한 기반을 다진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고인의 유지(遺志)이자 간절한 염원이었던 ‘100년 기업 세아’라는 꽃을 활짝 피우는 일이 남았다.

故 이운형 회장은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찾아 실천하는 데 지혜를 모으자고 주문하며 ‘정직, 열정, 실력’을 핵심 가치로 강조했다. 철과 같은 마음, 즉 많은 혜택을 주면서도 항상 변치 않는 겸손함을 갖자고 강조한故 이운형 회장의 여운 깊은 메시지, 100년 기업을 이끌어갈 세아인에게 남긴 고귀한 유산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한 휴머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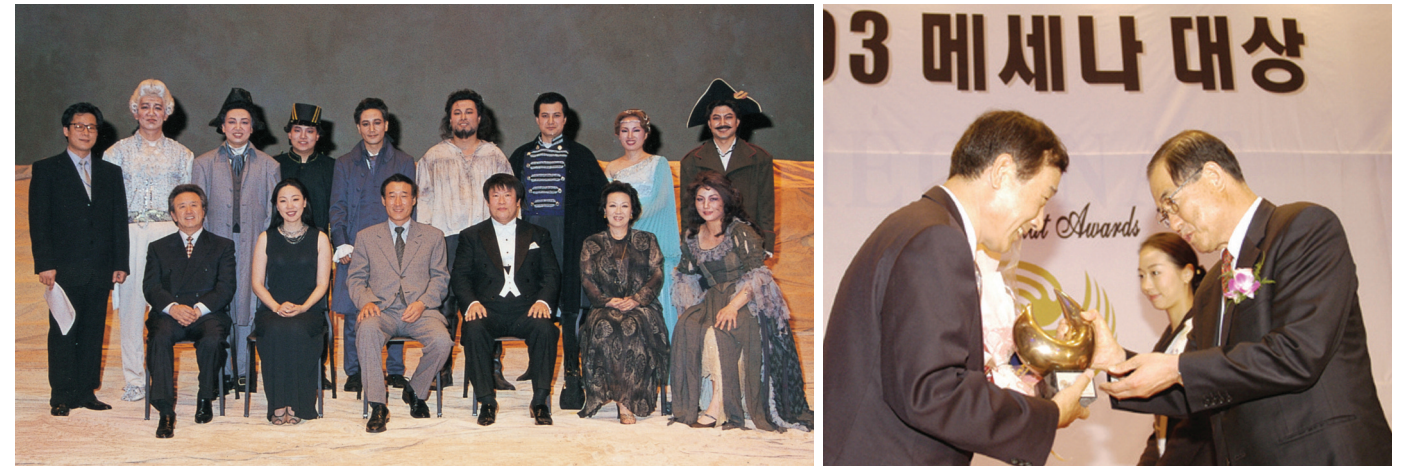
‘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사회를 위해 올바르게 쓴다’는 창업주 해암의 정신을 이어받은 **故 이운형 회장**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데 조용히 앞장섰다. 국립오페라단을 비롯한 문화예술단체 후원,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 국내외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소명에 책임을 다했다.



오페라와의 인연은 우연이 아닌 필연

이운형 회장의 조용한 기부와 후원 행보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국립오페라단이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한 2000년, 초대 이사장을 맡은 이운형 회장은 13년 간 아낌 없는 지원을 보냈다. 국립오페라단이 국립극장 산하의 위치에 독립함에 따라 자율적인 운영과 예술적 책임을 완수해야 하는 전환기에 초대 이사장에 취임한 이운형 회장은 재정적인 면은 이사장인 본인이 책임진다는 신념으로 직접적인 지원뿐 아니라 재계의 관심과 후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오페라에 대한 이운형 회장의 사랑은 보여주기 위한 걸치레가 아니었다. 이사장 취임 초기, 오페라에 대한 식견이 부족하던 때에는 그것을 깨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공부했으며, 매 공연마다 티켓, 팸플릿, CD 등을 모으고, 공연 기사를 스크랩하는 등 ‘그것’과 일체되기 위해 노력했다. 국립오페라단의 이사장직을 맡게 된 것은 우연이었으나 오페라와의 사랑은 ‘필연’이었다. 이운형 회장은 아름다운 오페라를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못내 아쉬워 직접 발품을 팔아가며 많은 사람들을 ‘오페라의 길’로 인도했다. 지인들에게 CD를 내밀며 “이제 당신만 오페라를 알게 된다면 모든 사람이 오페라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라고 홍보했다. 이렇게 시작한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가져왔으니 우리나라 철강업계의 대부분이 ‘오페라를 사랑하는 업계’가 되었다. 세아 직원들도 처음에는 오페라에 대해 낯설고 어려운 것으로 여겼으나 지금은 공연 티켓이 부족할 만큼 가깝게 지내고 있다.

원숙한 오페라가 탄생하기까지

이운형 회장의 후원에 힘입어 국립오페라단은 2000년 이후 ‘마농 레스코’를 비롯해 매년 5~6편 가량의 정통 대형 오페라와 창작 오페라를 무대에 올렸으며, 원숙한 정기 공연으로 다양한 관객층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경제적인 부분만 후원한 것은 아니다. 단원들의 의상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공연에 대해 진지하게 조언해 주었으며, 때론 아버지처럼 단원들의 용돈을 챙기기도 했다.

이운형 회장은 누구보다도 순수 예술의 가치가 높다고 생각했다. 순수 예술의 기반이 튼튼하면 이로부터 피어나는 다양한 창작물과 대중문화가 왕성할 것이라는 믿음에서다. 요즘처럼 문화콘텐츠가 중요한 시대에 그것의 근간이 되는 순수 예술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터, 이운형 회장의 묵묵한 지원이 예술의 다양성을 만들어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6년 국립오페라단이 만든 창작 오페라 ‘천생연분’ 공연의 마지막 날, 이운형 회장은 전석을 구매해 그룹 임직원과 거래처 관계자, 각계 인사들을 초청하는 자리로 만들었다. ‘세아가 사랑하는 오페라’라는 이름으로 처음 열린 이 행사는 재계 유명 인사들이 두루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운형 회장은 2000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8년 동안 국립오페라단 이사장으로 재임했으며, 2008년부터는 후원회장을 맡아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을 이어갔다.

오페라로 세상을 더 아름답게

이운형 회장은 1997년부터 경제와 문화예술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업 메세나 활동을 시작했다. 메세나(Mecenat)란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이운형 회장은 국립오페라단을 비롯해 한국페스티벌 앙상블, 예울음 악무대, 유니버설발레단, 대한테니스협회, 美 미시건대 한국학센터, 각종 연극 공연 등 문화·예술·스포츠 부문의 진흥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활발한 문화예술 지원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2003년 메세나대상 시상식에서 ‘창의상(대기업 부문)’을 수상하고, 2009년에는 독일 몽블랑재단이 주최하는 올해의 문화예술 후원자에 선정이 되기도 했다.

철강사업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듯이 오페라 등의 순수 문화예술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예술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철강과 오페라는 극과 극의 개체가 묘하게 닮아, **故 이운형 회장은** 여기에 더 매료되었는지도 모른다. 세아가 ‘오페라’ 하면 떠오르는 기업이 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은 **故 이운형 회장의** 행보가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였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빈소 현장

끊이지 않는 추모의 물결

**故 이운형 회장의 장례가 세아제강 회
사장으로 진행됐다. 빈소가 마련된 삼
성서울병원을 비롯해 포항, 군산, 창원,
순천, 부산에도 분향소가 설치됐으며,
정·재계 인사 및 시민 2만5000여 명
이 방문해 추모의 열기를 더했다.**

이운형 회장의 빈소에 철강업계를 비롯한 정·재계, 문화체육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3월 13일 정준양 포스코 회장과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박승하 현대제철 부회장, 오일환 철강협회 부회장 외 철강협회 인사들이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GS그룹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허동수 GS칼텍스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구본준 LG전자 부회장, 구자열 LS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김정태 하나은행그룹 회장, 윤세영 SBS명예회장 등 재계 인사들의 조문도 잇따랐다. 김의준 국립오페라단 단장, 최태지 국립발레단 단장, 수영선수 박태환도 빈소를 방문해 고인을 추모하며 명복을 빌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이운형 회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니 안타까운 마음 뿐”이라며 유가족을 위로한 뒤 30분 넘게 빈소를 지키며 조문객들을 맞았다.

정준양 포스코 회장은 “이운형 회장이 별세한 것은 철강업계의 큰 손실”이라며 “철강협회에서도 도움 일이 있으면 지원하겠다”며 유족들을 위로했다. 이어 “철강업계 뿐만 아니라 문화계로서도 큰 기동을 잃은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가 이 회장의 삶을 잘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승하 현대제철 부회장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 매우 안타깝다”고 말하며 “고



인의 별세는 철강업계의 큰 손실”이라고 덧붙였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은 “이 회장은 철강업계의 아주 훌륭하고 유능한 리더였는데 갑자기 별세해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다.

15일은 성 김(SungKim) 주한미군대사가 빈소를 방문해 “이 회장은 한국 산업계가 세계적인 입지를 구축하는 데 큰 기여를 한 분으로, 향후 100년에 한 번 나타나기 힘든 인물”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빈소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이명박 전 대통령,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에르난 브란테스 주한칠레대사 등 정관계 인사들의 근조화환도 이어졌다.

또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들도 근조화환을 보내 고인을 애도했다.

전국의 분향소에서도 추모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포항, 군산, 창원, 순천, 부산 등 각 지방 사무소에 설치된 분향소에는 시민과 임직원의 헌화·추모 행렬이 연일 줄을 이어 약 2만5000여 명의 조문객이 전국의 빈소와 분향소를 방문해 고인을 추모하고 애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결식 현장

철강계의 신사를 떠나보내다

故 이운형 회장의 영결식이 3월 16일 정동제일교회에서 엄수됐다. 영결식 후 통합사육 세아타워와 집무실을 마지막으로 둘러보고 경기도 용인에 안장됐다.



3월 16일 오전 8시 서울 정동제일교회 예배당에서 이운형 회장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의식이 거행됐다. 정동제일교회는 이 회장의 부친 故 이종덕 창업 회장의 장례를 치렀던 곳으로, 평소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던 이 회장이 우리나라 최초의 파이프 오르간을 복원하는 일을 후원했던 곳이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영결식에는 정준양 포스코 회장 및 황은연 부사장, 박영주 이견산업 회장, 손봉락 TCC동양 회장, 김하중 전 통일부 장관,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한국철강협회 관계자, 국립오페라단 관계자, 세아그룹 임직원들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했다. 영결식은 이운형 회장의 신앙에 따라 기독교식으로 치러졌다. 장례예배는 예식사, 묵도, 찬송, 교독문, 기도, 성경봉독, 찬양, 설교, 고인 약력보고, 조사, 추모 영상시청, 가족대표 인사, 찬송, 축도, 헌화, 출관 순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집례를 맡은 송기석 목사는 이운형 회장의 영생을 기도하며 “천국에서도 이운형 회장이 기뻐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길 바란다”며 서두를 열었다. 고인의 명복과 영생을 바라는 참석자들의 엄숙한 묵도 후 예배가 시작됐다. 손종세 목사는 기도에서 기업가의 역할 뿐 아니라 권사의 직분으로 교회 봉사에도 헌신을 다한 이운형 회장의 생전 활동을 칭송하며 “경제계와 문화예술 분야에서 많은 일을 한 이운형 회장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를 하늘나라로 떠나게 한 것도 주님의 뜻”이라고 참석자들을 위로했다. 슬픔을 안고 모인 유가족과 참석자들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이운형 회장이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것을 간절히 소망했다.

영결식 현장

이구택 전 포스코 회장은 “어질고도 아름다운 사람, 아직도 당신을 고인이라 부르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아무리 마음을 다독거려도 이렇게 보낼 수 없다는 생각 뿐”이라며 “40년 철강인생의 외길을 헤쳐 나아간 당신은 뛰어난 경영인이었지만, 드러낼 줄도 나설 줄도 모르는 천품의 겸손한 사람으로, 나서지 않아도 언제나 중심에 있었다”며 고인의 인품을 칭송했다.

박수길 한양대 명예교수는 “13년 전 국립오페라단이 재단법인으로 출범할 때, 회장님을 초대 이사장으로 모시면서 세계적 수준의 오페라단으로 만들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전하며 “하늘 나라에도 멋진 오페라 음악을 감상하며 편히 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아홀딩스 김진규 대표는 “출장으로 본인이 없는 동안 빈자리를 잘 지켜달라고 말한 것이 마지막 말이 될 줄은 몰랐다”며 “회장님의 따뜻하고 인자한 모습, 함께한 시간들이 이제는 추억으로 남게 된 것이 못내 아쉽다”고 애통한 심정을 전했다. 전 임직원을 대표해 조사를 낭독하던 김진규 대표가 “세아인 모두 회장님을 사랑한다”는 대목에서 끝내 참지 못하고 눈물을 보이자 장내는 순식간에 울음바다로 변했다.

이순형 회장은 “아무 준비 없이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 아쉬움이 더욱 크다”며 “고인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고 있지만 어쩌면 영원히 빈자리를 다 채울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하루 빨리 회사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사 후 이순형 회장의 활동 모습과 인터뷰가 담긴 영상이 상영됐다. 감사와 겸허의 자세로, 묵묵히 공존과 상생의 철학을 실천하며 66년 세월을 아름답게 살고 간 이순형 회장의 영상을 보던 참석자들은, 고인의 마지막 육성 인터뷰가 나오자 슬픔을 이기지 못한 채 탄식과 흐느낌을 쏟아냈다. 이어 참석자들은 헌화를 끝으로 이순형 회장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9시 30분 영결식이 끝난 후 이순형 회장의 영정과 위패, 훈장 등의 운구 행렬은 통합사옥 세아타워를 순회했다. 세아타워에 입장한 행렬은 고인의 집무실을 둘러보고 부친 이종덕 창업회장의 흉상 앞에서 인사를 올렸다. 세아그룹 직원 및 관계자들은 운구 차량이 세아타워에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이순형 회장의 마지막을 걸음을 지켜봤다.

세아타워 순회 후 운구 차량은 이순형 회장이 지난 13년 간 아낌없는 후원을 보낸 국립오페라단이 위치한 예술의전당을 순회했다. 예술의전당을 둘러본 운구 차량은 화장장이 위치한 서울추모공원으로 향했다. 회장은 12시 57분부터 약 1시간 20분가량 소요됐으며, 유골은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선영으로 옮겨졌다. 이순형 회장의 유골은 유가족 및 계열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안장 됐으며, 안장식을 마지막으로 이순형 회장은 선영에 고이 잠들었다.



추모의 글

이운형 회장을 애도하다

사람을 잃은 슬픔과 아픔이 클수록 ‘그’와의 끈을 놓기 어려울 것이다. 여기 그 인연의 끈을 놓을 수 없어 가슴 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 故 이운형 회장의 웃음, 눈물, 땀을 온전히 보아온 지인들, 지금도 어디선가 고인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하다는 그들의 부치지 못한 편지를 띄워본다.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여, 부디 편히 잠드시오

— 이 구 택 前 포스코 회장

어질고도 아름다운 사람,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친구, 이운형 회장!

아직은 당신을 고인이라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녁을 같이 하자던 언약이 불과 며칠 전인데, 이렇게 당신의 영전 앞에 서야 하다니, 이 황망한 현실을 도무지 실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그 부음은 어긋나지 않아서 불현 듯 영결의 시간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당신의 기도 들이 서려 있는 정동교회입니다. 이 회장, 며칠째 잠을 설치며 슬픔에 잠긴 나는 당신을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떠나보낼 방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사여일(生死如一), 회자정리(會者定離), 인명재천,



자연의 섭리, 이런 말들이 머릿속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나를 다독거리도 당신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하는 아쉬움이 여전히 내 깊은 마음을 할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안타까워하고 아까워하는 사람, 이운형 회장.
40년 철강인생의 외길을 헤쳐 나아간 당신은 드물게 뛰어난 경영인이었습니다. 활황기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가 불황기에 낙엽처럼 사라지는 한국 강관업계에서 유아독존으로 성장한 부산파이프가 재계 50위의 세아그룹으로 승승장구한 도정에는 늘 당신의 탁월한 예지력과 리더십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드러낼 줄도 나설 줄도 모르는 천품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세아의 장점이 뭐냐고 물었을 때도, 당신은 소이부답(笑而不答), 그저 웃기만 하고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 회장, 줄지에 당신을 떠나보내는 지금, 나는 인화와 인간존중,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세아의 무엇인가를 다시 헤아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실체는 당신의 인품과 성정, 인생관과 가치관이었을 터. 당신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 이 따뜻한 마음씨는 당신이 있는 자리마다 온기가 돌게 했고, 스스로 나서지 않는 일에도 당신을 그 중심에 서게 했습니다. 회사경영, 형제간 우애, 신앙생활, 오페라 지원 등 메세나활동, 봉사활동... 당신의 수많은 인간관계 속으로 그 따뜻한 마음씨가 넋물처럼 조용히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을 놓아 올게 만든 친구여, 평소의 건강이 차라리 원망스러운 사람아.
무엇이 그토록 당신을 서둘러 떠나게 했는가? 미망인과 자녀들의 저 망연자실한 얼굴이 보이지 않는가? 역장이 무너지는 뱃들의 슬픔을 아는가 모르는가? 세아 사람들의 저 불안한 표정이 보이지 않는가? 철강인들의 저 안타까운 눈빛이 보이지 않는가?

그러나 이 회장. 육신이 사라진다 해서 어찌 영혼마저 우리 곁을 떠날 수 있겠는가? 유족들의 심장 속에, 뱃들의 가슴 속에, 세아의 정신 속에, 철강인들의 기억 속에 당신의 영혼은 늘 살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질고도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순종한 사람,
오,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친구, 이운형 회장!

이제 우리는 당신을 떠나보낼 것입니다. 기어이 해후의 날이 오고야 말겠지만, 미리 그날을 기억할 수 없는 길로 떠나보낼 것입니다. 남은 우리가 슬픔의 힘으로 용기를 내서 영결의 문을 열면, 하나님의 손길이 아주 먼 길을 찾아온 당신의 고단한 일신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제 곧 님의 품에 안기면 고이 눈을 감으소서. 이승의 일은 염려하지 마소서. 남은 사람들을 믿으소서. 뿌린 대로 거두리라, 하셨던 님의 그 말씀을 믿어온 사람답게 평안히 쉬십시오. 당신은 좋은 씨앗들을 뿌리고 좋은 싹들을 틔트리 키워왔습니다. 이제 거두는 일쯤이야 남은 사람들에게 맡겨두십시오.

여보게 운형, 필생의 친구여.
젊은 시절의 푸른 꿈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전하고 땀 흘린 시간들이 행복으로 남아 있습니다. 훌륭한 보람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세상엔 여전히 할 일이 많지만 당신의 삶은 마치 눈 덮인 산야의 새벽 발자국처럼 뒤에 올 사람들의 길잡이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내 슬픈 가슴에 당신의 그 발자국을 가장 소중한 우정처럼 보듬어 봅니다.

이운형 회장, 사랑하는 친구여,
벌써 그리워지는 친구여,
부디 잘 가십시오,
부디 편히 잠드소서.

하늘에서도 멋진 오페라 음악을 감상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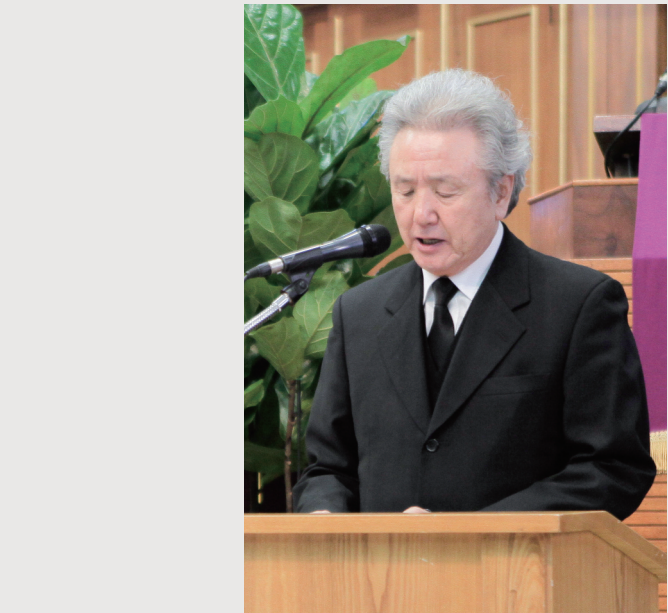
－ 박 수 길 한양대 음대 명예교수, 前 국립오페라단 단장

이운형 회장님, 어찌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실 수 있으십니까. 한국의 오페라계를 위해서 모든 성원을 다해주신 회장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슬픈 소식에 우리 모두는 놀람과 슬픔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늘 건강미가 넘치셨고 잔잔한 미소를 띄우면서 격의 없이 대해주시던 회장님의 생각지도 못했던 서거 소식에 회장님을 존경하는 많은 오페라 관계 음악인들은 허탈한 마음으로 회장님의 명복을 기도할 수 밖에 없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운형 회장님과의 인연을 회고해보면 13년 전 국립오페라단이 국립극장 산하에서 독립하여 재단법인으로 출범할 때, 회장님을 초대 이사장으로 어렵게 모셨습니다. 오페라의 ‘오’자도 모른다고 몇 번이나 저절하셨지만 재단법인 출범을 하루 앞두고 승락해 주셔서 무사히 「재단법인 국립오페라단」으로 출범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해 가을 공연은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이었습니다. 저는 ‘피가로의 결혼’ 하이라이트 CD를 들으면서 오페라의 내용을 공부하시는 모습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연을 앞두고 거의 4~5개월간 자동차 오디오를 통해 차를 탈 때마다 들으면서 음악을 익혔고, 거의 100번은 들었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회장님은 오페라 문화에 대한 새 지식을 넓히면서 최선을 다해서 오페라계를 위한 받침돌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회장님의 재정적 지원과 역할에 힘입어 국립오페라단은 나날이 좋은 무대를 만들고 세계적 오페라극장의 공연에 버금가는 무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회장님은 오페라에 출연하는 지휘자, 연출자, 성악가들은 물론이고 모든 스태프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공연이 끝나면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출연자들이 나오는 뒤쪽 출입구에 서서 일일이 손을 잡아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매 공연마다 주위의 기업인들을 오페라에 초대했고 오페라 객석은 어느 공연장에서도 볼 수 없는 사회의 저명한 인사들로 넘쳤습니다. 회장님은 국립오페라단 공연뿐만 아니



라 사립오페라단의 공연과 작은 극장에서 공연하는 소극장 오페라단 공연까지도 찾아오셔서 관계자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진심으로 오페라 문화가 이 나라에 뿌리 내리기를 바라셨던 회장님의 성원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국립오페라단과 인연을 맺은 2000년 이후 13년이 되는 지금 이운형 회장님은 그야말로 오페라 전문가가 되셨고 우리 오페라계의 큰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예술인, 특히 오페라인들은 언제나 말없이, 겸손하게 저희들을 지켜보면서 격려해 주시던 회장님의 모습을 오래 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이운형 회장님, 하늘나라에 가서서 맘 편히, 모든 일을 놓으시고 멋진 오페라 음악을 감상하십시오. 국립오페라단을 비롯한 서울의 오페라 공연장에서 울리는 노래가 회장님이 계시는 먼 곳까지 다다를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회장님께서 저 예배당 문을 밀치고 들어오면서 “박교수님, 어떻게 여기에 와 계신가요?”라고 말하면서 걸어오실 것 같습니다. 이운형 회장님, 이제 평안한 맘으로 쉬시기 바랍니다. 오래, 오래 회장님이 그리울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슬픔을 당한 가족들과 회장님을 사랑하는 지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회장님의 유덕을 받들어 100년 기업 세아를 만들겠습니다

－ 김 진 규 세아홀딩스 대표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운형 회장님. 35년이 넘게 회장님과 함께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힘이 든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힘든 자리에 불러 세우십니까. 출장 떠나시는 전날, 자리 비우는 동안 회사를 잘 부탁한다고 하셨던 당부가 제게 남긴 마지막 말씀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슬픈 마음을 억누를 길 없었는데, 오늘 회장님 영전 앞에 서니 다시금 가슴이 미어집니다. 인명(人命)은 재천(在天)이라고 하지만, 회장님께서 이렇게 횡망(橫亡)히 우리 곁을 떠나시다니 비통함과 허망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따뜻하고 인자한 회장님의 모습, 함께한 시간들이 이제는 추억으로 남게 된 것이 못내 아쉬워 눈물만 흐를 뿐입니다.

회장님, 회장님은 열정적인 세아인으로서, 대한민국을 이끄는 경제인으로서, 인류애를 실천하는 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일조한 분이셨습니다. 강관업계 최초로 1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며 대한민국 산업화의 초석을 다진 숨은 주역이자, 주요 계열사를 시장 선도 기업으로 육성시킨, 탁월한 리더이기도 하셨습니다. 국립오페라단을 비롯한 문화예술단체 후원,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 국내외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소명에도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2009년 철강업체들이 한파를 겪었던 이듬해 세아베스틸 주주총회에서는 대주주를 제외한 소액주주들에게 배당을 실시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어떤 것인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은 회장님의 인간적이고 겸손한 모습, 직원과 고객을 소중히 대하는 태도, 문화와 예술을 사랑한 고매한 인품에 깊이 감동하며 회장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운형 회장님. 회장님은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족처럼 소중히 여기고, 직원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인 보기 드문 경영인이자, 우리 세아인들의 스승이요 아버지였습니다. 직원들에게 “같이 오페라를 보러 가자”시던 낭만적이고 소탈한 모습, 그룹 통합사옥 세아타워 입주 후 “52년 만에 온 가족이 함께 모이게 되었다”며 기뻐하



신 얼굴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이운형 회장님. 이제 저희들은 슬픔을 딛고 일어나 회장님께서 생전에 강조하신 것들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100년 기업 세아를 향한 회장님의 간절한 염원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의 핵심가치인 ‘정직’ ‘열정’ ‘실력’을 가슴에 품고 다가올 50년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해주신 비전을 마지막 유언으로 삼아 기필코 전천후적으로 체질이 강한 세아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회장님께서 강조하셨던 ‘고객의 입장에서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고객지향의 문화’, ‘협력 회사와 상생을 추구하는 상호협력의 문화’,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정도경영(正道經營)’의 문화를 세아의 기업문화로 다져가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운형 회장님.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평생을 바친 회장님의 열정과 업적은 세아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남은 저희들은 회장님의 유덕을 받들어 세아가 사랑받는 기업,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회장님을 보내는 아쉬움을 달래고자 합니다.

이운형 회장님, 사랑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전 임직원을 대신해 삼가 당신의 명복을 빕니다. 부디 편히 쉬십시오.

언론에 보도된 추모의 물결

**故 이운형 회장의 별세 소식에 국내 언론에서는 잇따라 관련 기사를 내보냈다. 많은 신문 기사 속에서
故 이운형 회장은 뛰어난 기업가로, 세상을 보듬었던 어른으로 묘사됐다. 세아뿐 아니라 세상의 안타까
움을 자아내며 떠난 ‘진정한 신사’, 그를 깊이 애도하는 세상의 애심(哀心)을 담아보았다.**

매일경제 2013년 3월 15일 (사회) 장세주 동국제강그룹 회장

故 이운형 세아그룹 회장을 추모하며….

해야 할 그 많은 일을 어찌 놓고 가셨습니까?
지난 10일 일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공항에서 느닷없
이 전해 들은 비보에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했습니다. 최근
만났을 때 그 특유의 온화한 미소와 함께 ‘장 회장’ 하고 부
르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세아제강은 53년 역사 속에서 오너십과 업종을 일관되게
유지해온 몇 안 되는 철강기업입니다. 저와는 항상 서로를
남다르게 여겨왔습니다.
지난해 말 세아그룹이 서울 마포 신사옥에 입주할 때 내 일
처럼 즐거워하고 축하했던 기억이 선합니다. 작년 10월 인
도 뉴델리에서 세아베스틸이 세계철강협회 회원사로 가입
해 큰아들 태성 군과 한자리에 섰을 때 유별나게 기쁨을 감
추지 않았던 고인의 모습도 생생합니다.
고(故) 이운형 회장은 기업의 메세나 활동과 이를 전파하는
데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국립오페라단 이사장 시절 “장
회장이 오페라 들으면 오페라 대중화의 절반은 이룬 셈 치
겠다”며 오페라 CD를 건네줄 때의 장난 어린 눈빛이 생각
납니다. 결국엔 이 회장을 따라 오페라를 후원하게 될 정도
로 큰 영향을 받았으니 당신은 나에게도 스승입니다.

돌이켜보면 고인에게 배운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고인은 1980년대 30대 초반부터 이미 부산파이프(세아제
강 전신)의 어엿한 경영자로서 활약했습니다. 경륜과 시각
이 남다르게 높았지만 절대로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꼼꼼함과 세심함은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골프를 치
면 핸디와 스코어는 물론이고 그날 경기진행 상황까지도 메
모했고, 다음에 반드시 상기시켜주곤 했습니다. 하루 24시
간, 일주일 7일 모두를 철저하게 관리했고, 절대로 멈추지
않을 부지런함으로 스스로에게 엄격했습니다. 반면에 남에
게는 참으로 너그럽고 배려심이 깊어 ‘외유내강’의 전형이
었습니다.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지 않고 멀리 내다보며 신뢰를 주었
고, 고객과 함께 성장·발전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것처럼 충실했던 경영
자를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귀감이었지만, 고인은 드러내기
보다는 든든한 후원자 역할에 만족해했습니다. 그래서 고
인이 말하는 ‘정도경영’은 그 누구의 말보다 더욱 무게가 있
었습니다.
이제 지난 40년간 철강인으로서 세상과 소통했던 아름다운
경영자를 떠나 보내게 됐습니다. 참으로 뛰어난 분을 아무
준비도 없이 보내버렸기에 슬프기 그지없습니다.

2010년 세아제강 창립 50주년 때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씩어지지 않았다’는 고인의 생전 말대로 그가 뿌린 미래의
씨앗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빛을 발하고, 훌륭한 열매를 맺
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남아 있는 후학들이 고인이 못다한
일들을 성실히 이어가고, 그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모범으
로 삼아 주기를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스틸데일리 2013년 3월 14일 (칼럼) 김홍식 기자

“세아그룹 故 이운형 회장의 冥福을 기리며…”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회장이 평소 화를 내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다. IMF와 금융위기로 모두가 어려워할
때도, 심지어 회사의 실적이 좋지 않을 때조차 임원들에게
호통 치기보다 “힘드시죠?”라는 말로 위로를 먼저 건넸다.
스카우트를 한 직원에 대해 통상적인 인사가 아니라 “우리
회사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먼저 고개를 숙이는 사
람이었다. 요즘말로 감성경영(感性經營)을 몸소 실천한 것
이다. 그래서 그의 죽음에 모든 사람이 가슴 아파 한다.
개인적으로도 이 회장과의 에피소드가 있다. 철강신문 재
직 시절 매년 철강업체 사장단 골프대회를 개최했는데, 하
루는 비가 많이 오는 날 대회가 열렸다. 제법 굵은 비가 내
리는 가운데 티샷을 하는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어 비에
카메라가 젖지 않기 위해 양복 윗도리로 카메라를 감싸고
있는데 어느 분이 우산을 받쳐 주는 게 아닌가? 바로 이운
형 회장님이셨다. 나는 이러한 일화를 세아가족 사보에 게

재한 적이 있다. 내게 있어 이 회장은 준엄한 대기업 회장님
이라기 보다 더없이 다정다감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분이
셨다. 행사장에서 만나도 안부를 묻고 격려를 해주시던 분
이시다. 세아그룹에는 평소 이 회장의 이러한 모습이 문화
로 녹아내려져 있다. 한마디로 겸손(謙遜)이다. 장례식장에
조문을 갔을 때 그의 빈소가 특실이 아닌 일반실이라는 사
실에 또 한 번 놀랐다.

그의 죽음에 모두가 허탈해 하는 이유는 지금 향년 67세의
젊은 나이 때문만이 아니다. 우리 철강업계가 그 어느 때보
다 어렵고 풀어야할 숙제가 너무 많아, 한사람의 리더가 아
쉬운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의 경영스타일은 항상 모범이
되었기에, 재벌의 사회적 책임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
소 실천해온 사람이었기에 그를 떠나보냄이 못내 아쉬울 따
름이다.

EBN스틸뉴스 2013년 3월 13일 (최신 뉴스) 조인영 기자

“죽는 날까지, 철강업 한다더니…”

이 회장은 평소 언론에 요란하게 드러나지 않게 사회공헌
활동에 힘써온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13년간 그는 국립오
페라단을 후원해왔고, 지난해 말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
랑의 열매에 1억 원을 기부하며 고액 기부 클럽인 ‘아너 소
사이어티(Honor Society)’에 가입하기도 했으나 언론에 노
출하진 않았다.

또 사업장에서선 식당 아주머니에게 금일봉을 따로 준비해 전
달할 정도로 직원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아낌없이 베풀었다.

언론에 비친 그는 매해 철강협회 신년회 때마다 항상 문 앞에
서서 손님들을 맞고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상 부드러운 자세
로 응하는 모습이었다.

산업계 특히 철강 시장은 매년 해외 수입산 공격과 경쟁 가
속화로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40여 년간
철강 외길을 걸어오면서 현장을 누빈 열정적인 활동과 직
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독인 따뜻한 그의 마음씨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늘 견지해야할 자세가 아닐까 싶다.

“오페라 아낀 당신의 자리에 弔花를”

21일 저녁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국립오페라단 올 시즌 개막작인 베르디 오페라 ‘팔스타프’의 막이 오르길 기다렸다. 하지만 불가리아 지휘자 줄리안 코바체프의 손짓에 따라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곡은 영국 작곡가 엘가의 ‘수수께끼 변주곡’ 9번 님로드. 자막이 흘러나왔다. 지난 10일 칠레 출장길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국립오페라단 후원회장 고(故) 이운형 세아그룹 회장을 추모하기 위한 연주라고 했다. ‘님로드’는 다이애나 영국 왕세자빈의 장례식 추모곡으로도 쓰인 곡이다.

이 회장이 즐겨 앓던 오페라극장 2층 B블록 1열 5번엔 백합과 국화로 꾸민 조화가 대신 자리를 지켰다. 추모곡이 흘러나오자 모두 고인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적셨다. 이 회장은 출장 직전 아내에게 “개막 공연 때 꼭 가서 손님들을 잘 모시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장례식 끝난 지 닷새밖에 안됐지만, 아내 박의숙 세아네트웍스 사장은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공연장을 찾았다.

이 회장은 2000년부터 재단법인으로 새 출범한 국립오페라단 이사장을 지냈고, 2008년부터는 후원회장으로서 ‘오

페라 전도사’ 역을 해왔다. 이 회장의 권유로 오페라 후원자가 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은 “‘당신이 오페라 들으면 오페라 대중화의 절반은 이룬 셈 치겠다’며 CD를 건네주던 이 회장의 장난 어린 눈빛이 생각난다”고 추모했다.

이 회장은 국립오페라단을 지원하는 주(主) 스폰서를 맡아 작품마다 3000만~1억 원 정도 제작비를 댔다. 오페라를 보고 싶어하는 직원들을 위해선 회사에서 따로 티켓을 구입했다. 그것도 가장 비싼 R석(15만원)으로만 샀다. ‘팔스타프’도 1억 원어치 정도 구입했다. 신보현 국립오페라단 대외협력팀장은 “공연이 어렵다고 말씀드리면 그 자리에서 전화기를 붙들고 ‘우리 표가 좀 안 나간다. 그 회사에서 공연 좀 보라’며 마케팅 직원처럼 티켓을 팔아주셨다”고 했다. 이런 활동으로 2009년 몽블랑 문화예술후원자상도 받았다.

이날 공연 팸플릿엔 국립오페라단 임직원 명의로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추모 글이 실렸다. 국립오페라단은 24일까지 계속되는 ‘팔스타프’ 공연 시작 전, 이 회장을 추모하는 ‘님로드’를 매번 연주할 계획이다.

“미리 쓰는 유서”

사람이 태어나서 오는 순서는 있되 죽어서 저세상으로 가는 순서는 딱히 없어 보인다. 오늘 영결식을 하는 세아그룹 고(故) 이운형 회장의 경우엔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정말이지 사람 일 알 수가 없다. 특히 이 회장의 경우 지난 토요일에 예술의전당에서 함께 유니버설발레단의 ‘백조의

호수’ 공연을 보려 했지만 그분의 출장일정 때문에 나와 다른 일행들만 보게 됐다. 결국 그는 공연 보려고 했던 날 출국을 했고 다음 날 비보(悲報)가 전해졌다. 정말 믿기지 않았다. 저세상으로 가기엔 너무 아까운 나이이기도 했거니와 주변 사람 그 누구에게도 떠나간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

렇게 갔기에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 애잔하고 먹먹해진다.

며칠 전 삼성서울병원 영안실에 마련된 고 이운형 회장의 빈소를 찾았을 때 늦은 오후임에도 조문객들이 붐벼 순서를 기다리며 서 있는데 멀리 마주 보이는 영정의 웃는 모습이 마치 살아서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것만 같았다. 게다가 평소 나의 돌아가신 아버지와 같은 고향(평남 강서) 인지라 누님이라 부르던 이 회장의 미망인 박의숙 여사가 함께 문상 간 아내를 껴안으며 참았던 눈물을 보이자 사내인 나 역시 애잔한 마음을 누를 길 없어 함께 껴안고 눈물을 삼켰다. 박 여사인들 남편이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저세상으로 갔다는 것이 믿어지겠나. 장례를 모두 치른 후애라

“‘철강업계 신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운형 세아그룹 회장을 처음 만난 건 올 1월 4일 대한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서였다. 그는 초면의 기자에게 철강산업의 미래, 세아그룹의 도전과 꿈에 대해 짧지만 친절하게 들려줬다. 철강시장 침체로 계열사들의 주가가 떨어지는 등 어려움에 빠진 그룹 경영에 대해선 “특수강 등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뛰어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혹독한 철강시황을 극복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세아’라는 사명(社名)엔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뜻을 담았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지난 1월 말엔 새로 입주한 통합사옥 세아타워로 기자를 초대했다. 대화할 때는 자신의 공(功)은 낮추고, 타인의 장점을 높인다는 느낌이 들었다. 40년 철강 사나이는 “경쟁사와의 역학 관계, 앞으로의 투자 계획을 말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을 적당히 농치며 “뛰어난 경쟁자와 겨뤘기 때문에 그

도 마치 출장 다녀왔다는 듯이 문 열고 집으로 들어올 것만 같지 않겠는가? 아마도 그녀에게 가장 가슴 깊이 사무칠 일은 그가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황망하게 떠나갔다는 것이리라. 박 여사의 평소 말투대로 “차라리 말 한마디 하고 갔으면 밉지는 않을 텐데 아무 말 없이 그렇게 간 것이 너무나 야속하고 알뜰다”고 해야 할건가. 돈이 아무리 있으면 뭘 하고 자식이 아무리 많으면 뭘 하겠나. 또 제아무리 많은 이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조문하고 위로해줘도 살며 사랑하며 지지고 볶고 미워하고 싸우기도 했을 그 남편이란 존재가 어느 순간 말 한마디 없이 주검이 되어 왔을 때의 심정을 그 누가 헤아리며 그 무엇으로 메우랴.

롭이 발전했고, 한국의 철강산업이 세계 일류가 될 수 있었다”고 답했다.

주변을 세심하게 챙기는 면모도 읽을 수 있었다. “경기고 2년 후배인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부인인 최아영 작가의 전시회에 몰래 들러 그림을 사려고 했더니 ‘회장님이 그림을 사주면 남편에게 혼난다’는 핀잔만 듣고 왔다”며 웃었다. 또 “지인이 카페를 새로 열었는데 음료 쿠폰을 얻었다”며 “난 거기 들를 일이 없고 젊은 사람은 좋아할지 모르겠다”며 선물로 줬다.

국립오페라단 이사장을 맡게 된 데 대해선 “평소 알고 지내던 박수길 한양대 성악과 명예교수가 맡아달라기에 승낙했던 것”이라며 “덕분에 본격적으로 오페라를 공부했고, 예술가에게 존경심이 생겼다”고 했다. ‘예술을 사랑하는 철강업계의 신사’로 불리는 까닭을 어렵פות이나마 알 수 있었다.

각계각층에서 도착한 추모의 물결

국내외에서 **故 이운형 회장**을 추모하는 조전과 서신이 쏟아졌다. 사업 관계에 있던 기업인부터 후원을 받았던 학생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에서 가슴 찡한 사연이 도착했다. 생전에 작은 인연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평생을 지켜온, 아름다운 흔적이 아닐까. **故 이운형 회장**에게 직접 닿을 수 없어 더 아쉬운 사연들이 지면으로나마 위로를 받는다.

당신의 그 큰 공헌보다도 훨씬 더 크게 성공한 사람

Saud Bin Saqr al Qasimi UAE Ras Al Khaimah의 통치자

세아그룹 이운형 회장의 죽음에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하며
그의 가족과 동료들에게 제 뜻을 전달하길 희망합니다.
이 회장의 성공적인 경력은 지성, 도덕성, 열정의
보기 드문 조합이었습니다.

이 회장은 UAE 특히, Ras Al Khaimah에서 파트너이자
친구였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 동안 저는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세아그룹의 안영을
기원하겠습니다.

유가족과 세아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애도를 전합니다.

Phillip Stephenson 前 TI Automotive (한국번디 합작법인) 대표이사

갑작스러운 이운형 회장의 별세소식에 엄청난 슬픔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운형 회장은 생전에 지성과 인품을 겸비했던 리더로서 현재의 세아를 이끄신
분입니다.
특히, 어려웠던 시기에 세아와 TI의 관계를 키우고 전적인 우정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유가족과 세아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애도를 전합니다.

그의 이른 죽음은 비극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장님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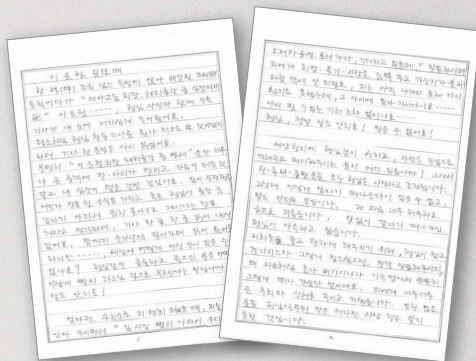
Dan Pryor Colfax 社 부회장

어제 회장님에 대한 비보를 접했습니다.
Colfax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지난 2월 제가 세아 ESAB에 관여하게 되어 이운형 회장을
처음으로 만나 뵈며 직접적인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의 안목과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호 간의 성과를
이루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운형 회장과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드물고
그의 이른 죽음은 비극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장님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을 보여주셨던 회장님

이동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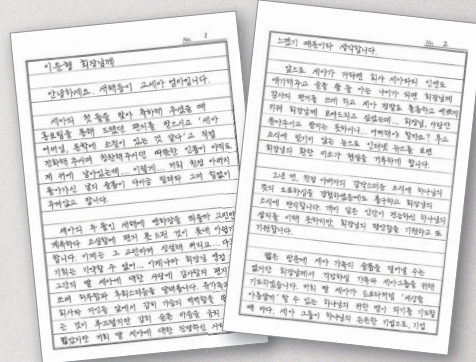
故 이운형 회장님
고인께서는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서 나눔을 실천하며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형님, 하늘나라 여행 마치고 꼭 돌아오세요

김관수 (주)한화 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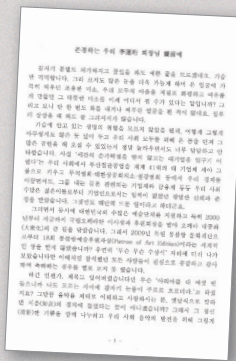
형님, 하늘나라에서 좀 편하게 쉬었다 오시려고 장기
여행 떠나신 것 맞죠? “관수야, 그동안 잘 있었어? 고생
많았다. 다녀왔으니 우리 만나자.”하며 연락 주실거죠?
그럼 저는 “예! 형님, 잘 다녀오셨어요? 어디서 우리
만날까요? 바로 나가겠습니다!”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형님! 하늘나라 여행 편히 잘 다녀오세요. 형님!
사랑합니다.



저희 딸 세아에 대한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이선희 고세아 양 엄마

짧은 방문에 세아가족의 슬픔을 덜어낼 수는 없지만
회장님께서 걱정하실 가족과 세아그룹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딸 세아가 드보라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딸이 되기를 기도할
때마다, 세아그룹이 기업 이념을 실천하여 ‘세상을
아름답게’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회사, 그 역사가
끊이지 않는 회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운형 회장님 영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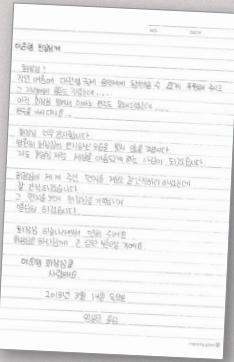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원 이사장

한 삶이 마지막 정리를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울어주는가?’로 인생을 평가한다면 우리 이 회장님은
분명히 당신의 그 큰 공헌보다도 훨씬 더 크게 성공한
사람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우리 회장님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영원히 함께 살아 갈
것입니다. 새삼 한없이 가득한 아쉬움 속에 삼가 **故**
이운형 회장님 영전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개 숙여
명복을 빕니다.

회장님,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세요

임일균 학생

회장님! 작년 여름에 대관령 국제 음악제에 참석할 수
있게 후원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용돈도 주셨는데... 아직
회장님 앞에서 피아노 연주도 못해드렸는데... 천국을
가시다니요...
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영원히 회장님의 인자하신
모습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회장님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회장님,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세요. 회장님은 하나님께 큰 칭찬 받으실 거예요.
이운형 회장님! 사랑해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남긴 한마디

故 이운형 회장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메시지는 여전히 살아있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일생을 살아가며 남긴 한마디 한마디, 거기에 담긴 고인의 훈과 열이 우리를 깨우친다. 아래 메시지를 통해 세아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되새겨보자. 미처 채우지 못한 고인의 인생이 보람으로 가득찰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자세’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기간의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장기적인 회사의 이익을 보고
차별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룹 신년회의 강평(2013. 1. 14)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씌어 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러 지지 않았습니다.
생애 최고의 날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입니다.”

세아는 늘 고객의 입장에서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고객지향’ 문화를,
협력회사와 상생을 추구하는 ‘상호협력’ 문화를,
그리고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정도(正道)경영’의 문화를
더 굳게 다져 나갈 것입니다.

창립 50주년 기념사 (2010. 10. 18)

기업의 존재 가치를 폭넓게 인지하여 좀 더 사회적인 기업, 세상에 도움을 주는
착한 기업이 되어야 높은 가치를 지닌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아가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 참여하고,
존경 받고 사랑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급 관리자 역량향성 과정 (2011. 5. 27)

창업회장께서 우리의 곁을 떠나신지 벌써 10년이
되었지만, 우리는 당신이 생전에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몸소 실천하셨던 ‘세아의 기본 덕목’들을 잊지 않고
잘 지켜왔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남보다 더 열심히 업무에 임하는 ‘성실함’입니다.
둘째, 공명정대하고 기본을 지키는 ‘정도경영’ 정신입니다.
셋째, 자기 자신의 능력과 분수를 아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넷째, 현장을 중시하는 ‘실용정신’입니다.

故 이종덕 창업회장 10주기 추모식 인사 (2010. 12. 10)

이운형 회장의 흔적이 묻어 있는 유품들

어렵고 힘든 마음으로 **故** 이운형 회장의 손때 묻은 유품을 담아보았다. 하루하루 켜켜이 쌓아온 아름다운 나이에에서 그의 숨결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故** 이운형 회장이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왔는지를 몸에 새겨넣은 유품을 통해 우리는 **故** 이운형 회장을 더 깊이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01 집무실

이운형 회장의 집무실은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다. 책장에는 이운형 회장이 즐겨보던 책과 감사패, 앨범 등이 진열돼 있다. 현재 집무실은 이운형 회장이 떠나기 전 그 모습 그대로 남아 있다.



02

금탑산업훈장

'200억불 수출의 날'을 맞아 1981년에 수상한 금탑산업훈장



03

자필 수첩

이운형 회장은 항상 수첩을 소지하고 다녔으며 스케줄과 아이디어를 꼼꼼하게 기록했다. 여백 없이 뽁뽁하게 메모한 기록이 이운형 회장의 평소 모습을 잘 보여준다.



04

몽블랑 후원자상 기념 만년필

2009년 독일 몽블랑재단에서 주최한 문화예술 후원자상을 수상하며 받은 기념 만년필



05

메세나대상 트로피

문화예술 분야를 후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3년 수상한 메세나대상 트로피



06

집무 서류철

이운형 회장이 결제한 집무 서류철.
서류철에도 포스트잇으로 꼼꼼하게
메모한 흔적이 남아 있다.

07

국립오페라단 팸플릿, 티켓 모음

이운형 회장은 국립오페라단 정기 공연을
매회 감상했으며, 티켓을 구입해
지인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국립오페라단에서 발행한 공연 책자와
팸플릿도 버리지 않고 잘 보관했다.



08

이운형 회장이 즐겨 들던 오페라 CD와 DVD

이운형 회장은 오페라 CD와 DVD를 항상
자동차에 쌓아 두고 오페라 공부를 했다.
해외 오페라단의 작품을 꼼꼼히 리뷰해
국립오페라단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09

국립오페라단 공연 책자를 모아 둔 서재



10

아기에수님 목각상

이운형 회장은 신앙인으로도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았다.
기독교에서 가르친 대로 그의 삶을 통해
온유, 정직, 사랑을 실천했다.

11

팝 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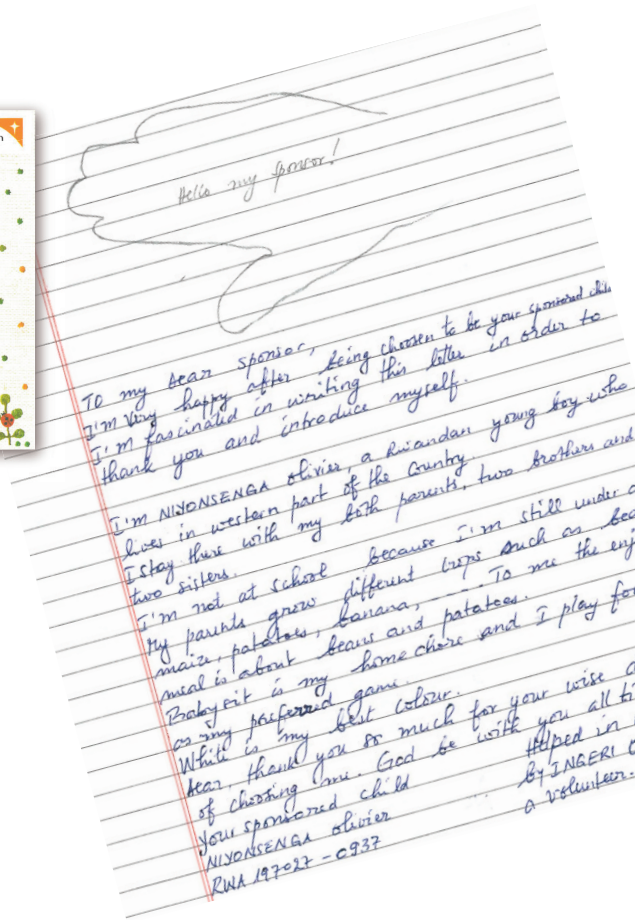
중국출신 작가 엔 차오
(Yan Chao)가 이운형
회장에게 선물한 팝아트.



12

후원아동 카드와 편지

이운형 회장은 기업 차원의 후원 활동
외에도 개인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르완다와 몽골의 아동이 감사를 담아
보낸 편지도 소중하게 보관했다.



13

기념 사진

부시 前 미국 대통령 방한 시 부인
박익숙 여사와 촬영한 사진

이운형 회장을 회상하다

故 이운형 회장은 떠났지만 그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빛나고 있다. 고인이 지나온 세월을 온전히 치하하고, 앞으로도 잊지 않겠노라 확인하는 사람들. 누구보다 고인을 그리워하고 있는 지인들을 직접 만나보았다.

따뜻함과 겸손함을 갖춘 덕장(德將)

박영주 이견산업 회장

“‘이운형’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제일 먼저 ‘따뜻함’과 ‘겸손함’이 떠오릅니다.”

박영주 이견산업 회장은 이운형 회장을 떠올리며 ‘따뜻함과 겸손함을 갖춘 덕장(德將)’이라고 말했다. 한·칠레협회 회장이기도 한 박영주 회장은 경제협회 및 오페라 관계자 회의 참석을 위해 이운형 회장과 함께 칠레를 방문했다. 경유지에서 생긴 갑작스런 일에 당황할 여유도 없이, 박 회장은 즉시 운구 절차를 논의하고 한국으로의 수송을 도왔다. 박영주 회장은 장례가 다 끝나고 나서야 이 회장의 빈자리에 깊은 상실감을 느꼈다고 했다.

“이운형 회장은 35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한 좋은 친구이자 동료였습니다. 같이 의논할 일도,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우리나라 재계를 통틀어 이운형 회장 같은 사람을 다시 만나기는 힘들 것입니다.”

몇 년 전 겨울, 박영주 회장은 이운형 회장에게서 작은 쇼핑백 하나를 건네받았다. 상자 속에는 울 스웨터 한 벌이 들어 있었다. 몸에 딱 맞는 사이즈를 고른 이운형 회장의 세심함과, 손수 선물을 준비한 마음이 고마워서 박영주 회장은 겨울만 되면 그 옷을 입고 일을 한다고 했다.

“이운형 회장의 장점은 일일이 꼽기 힘들 정도지요. 조용하고 세심하고, 작은 것까지 하나에도 진심을 대해 마음을 쓰고 챙겼습니다. 다른 CEO들과는 달리 이운형 회장은 재계의 다양한 활동에서도 열과 성을 다했지요. 기업가로서의 행적 뿐 아니라 아내와 가족, 동생과의 관계 등 개인적인 부분에서도 주변 사람들이 흉내 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참 모범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귀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3년 전, 국립오페라단 이사장직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이운형 회장은 박영주 회장을 찾아와 수락여부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박영주 회장은 감투를 쓰고 적당히 후원하는 시늉만 하려면 애초에 말지 말고, 국립오페라단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각오로 시작해보라고 조언을 했다. 고민 끝에 이사장직을 맡은 이운형 회장은 자동차에 CD와



DVD를 쌓아 놓고 이동 중에도 오페라 공부를 했고, 매 공연마다 지인을 초대해 함께 감상하기를 권유했다. 박영주 회장은 이운형 회장을 통해 철강업계를 포함한 재계 CEO들이 오페라에 관심을 갖게 됐으며, 국립오페라단이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세간에서는 한 기업의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나쁜 말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운형 회장은 일절 그런 소리가 없으니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며 마지막 말을 이었다.

“장례가 끝나고 지인들과 이운형 회장 산소에 갔습니다. 이 회장 생전에 좋아하던 찬송가도 불러주고, 마지막엔 다 같이 박수를 쳐줬어요. ‘이운형 당신, 참 잘 살았다’는 의미로요. 아마도 이운형 회장은 편안하게 잘 쉬고 있을 겁니다. 남은 사람들은 고인의 유지를 이어서 세아가 더 사랑받고 존경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지요.”

이웃사촌이자 많은 가르침을 준 선배

손봉락 TCC동양 회장

“세아타워에 철강협회 사람들을 초대해 이곳저곳 안내하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손봉락 회장은 올해 1월 부친상을 당했다. 이운형 회장은 손 회장의 부친상 소식을 듣자마자 일정을 바꿔 싱가포르에서 급히 귀국했고, 손봉락 회장은 그런 이 회장의 마음 씀씀이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 그런데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운형 회장이 돌연 세상을 떠났다. 손 회장은 사랑하는 부친과 선배를 동시에 잃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하늘이 원망스럽지요. 이운형 회장과는 아주 친하게 지낸 사이였거든요. 아침에 조찬 모임에서 보고, 점심 때 철강협회 모임에서 만나고, 저녁에는 경제인 모임에서 봤던 적도 있었으니까요. 추억이 너무 많아 지금도 그립습니다.”

TCC동양 포항공장 바로 옆에는 세아제강 포항공장이 자리하고 있다. 1979년 동양석판(현 TCC동양)에 입사한 손봉락 회장은 업무 차 포항에 들렀다가 동양석판 공장 옆에 위치한 부산파이프(현 세아제강) 공장을 보게 됐다. ‘이웃공장은 무엇을 만드는 곳일까?’라는 관심이 생겼지만, 친밀해질 기회 없이 일본으로 파견됐다. 이후 귀국한 손봉락 회장은 철강협회 활동을 시작하며 이운형 회장과 처음 만났다. 이 회장은 손 회장이 동양석판에서 근무한다고 하자 이웃사촌이라며 반갑게 맞아주었고, 두 사람은 같은 철강인이자 이웃으로 30년 이상을 친하게 지냈다.

“큰 조직을 이끌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데, 이운형 회장에게서는 강압적인 면을 일절 볼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저는 이운형 회장의 인품을 존경해 왔지만, 장례식 때 특히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보통 ‘회장’이라고 하면 직원들이 무서워는 하지만 존경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회장의 경우는 어린 신입사원까지 진심으로 슬퍼하면서 울더군요. 그 때 ‘이운형 회장은 세아의 전 임직원에게 모두 사랑받은 사람이구나’ 싶었지요.”



세아제강 사외이사로 15년 가까이 활동한 손봉락 회장은 ‘기업가 이운형 회장’ 역시 높게 평가했다. 2003년 세아베스틸(전 기아특수강) 인수 당시, 이운형 회장은 모든 이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적극적이고 과감한 패를 들었다. 손봉락 회장은 이운형 회장의 경영 방식을 옆에서 지켜보며 ‘적재적소에 맞는 정확한 판단과 투자를 할 줄 아는 CEO’라고 감탄하게 됐다.

“지인들이 느끼는 슬픔만큼, 세아 임직원들 역시 이운형 회장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겠지요. 하지만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장 생전의 인품을 잘 생각하며, 남은 사람들이 세아를 더 크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시없을 기업인이자 인격자

김하중 前 통일부 장관·駐中대사

김하중 전 통일부 장관은 올해 2월 이운형 회장과 점심을 같이 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 전 장관은 ‘칠레에 다녀오겠다’는 이운형 회장의 인사가 마지막이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도를 할 때마다 눈물이 난다고 했다.

“제가 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운형 회장이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우리 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CEO로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능력, 국내외 다양한 인맥과 존경받는 인품으로 더 오래 활동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없어선 안 될 중요한 사람인데…。 이렇게 빨리 보낸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슬픉니다.”

김하중 전 장관은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1학년 시절, 이운형 회장과 처음 만났다. 두 사람이 각별히 가까워지게 된 계기는 ROTC로 강도 높은 훈련을 받으면서였다. 김 전 장관은 ‘자네는 부잣집 아들인데, 왜 이런 고생을 하느냐’고 물었지만 이운형 회장은 빙그레 웃기만 했다. 이후 김하중 전 장관은 전방에서 소위로 복무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운형 회장이 연락도 없이 김하중 전 장관을 찾아왔다. 깜짝 놀란 김 전 장관이 ‘어떻게 왔느냐’고 묻자, 이운형 회장은 ‘전방에서 고생하는데 위로해주고 싶어서 왔다’며 말없이 웃었다. 김하중 전 장관은 ‘나나 이 회장이나 군대 소대장으로 고생했던 것은 똑같은데, 그 먼 길을 버스를 타고 면회를 왔다는 것이 너무나 고마웠다’며 지금도 그 시절을 추억하면 가슴이 찡하다고 했다.

“그 때 제가 ‘다른 사람들처럼 서울이나 큰 도시 후방으로 가지 왜 5사단으로 지원했느냐’고 물었어요. 이운형 회장은 ‘아버님이 이왕 군대를 가려면 힘든 곳에서 단련 받아야 한다고 권유하셔서 그랬노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이 회장의 아버님도 훌륭한 분이시고, 이 회장도 참 효자구나’라는 생각을 했지요.”

김하중 전 장관은 지난 2009년, 36년 동안 몸담았던 공직에서 은퇴했다. 김 전 장관은



공직에서 겪었던 일들과 자신의 신앙생활을 담은 이야기를 쓰겠다고 결심하고, 집필을 위해 주변 사람들과의 연락을 끊었다. 그렇게 4년이 지나자 지인들과의 관계는 자연스레 소원해졌지만, 오히려 이운형 회장과는 현직에 있을 때보다 더 각별한 사이가 됐다. 자주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살뜰하게 챙기는 이운형 회장 덕분이었다.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 이 회장은 제 손을 잡으며 회사와 가족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 달라고 부탁하더군요. 그때는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그 말이 제게 남긴 유언이었나 봐요. 앞으로 저는 세아와 이 회장의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서 이운형 회장과 기쁘고 반갑게 만나고 싶습니다.”

국립오페라단에 희망의 싹을 틔운 후원인

김의준 국립오페라단 단장

김의준 단장과 이운형 회장의 인연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다른 기관에서 근무했던 김의준 단장은 특별공연을 준비하던 중, 최고 경영자로부터 “세아그룹에 이운형 회장을 꼭 초대하라”는 당부를 받았다. “이운형 회장은 돈을 버는 것 뿐 아니라 쓰는 법도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다. 이번 공연을 유일하게 이해하고 있는 분이니 꼭 모셔야 한다”는 말을 듣고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회장님이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6년 후인 2011년, 국립오페라단으로 온 김의준 단장은 이사회 임원들과의 자리에서 이운형 회장을 처음 만나게 된다.

“그때는 회장님의 함자만 알았지, 얼굴은 모르고 있었지요. 관계자들과 식당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르신 한 분이 조용히 들어오시는 거예요. 손때 묻은 서류봉투를 든 그 어르신이 이운형 회장님일거라곤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한 그룹의 총수라기보다 옆집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사람을 외형으로 판단한 제 자신이 무척이나 부끄러웠던 첫 만남이었지요. 회장님은 검소하고 소탈하셨을 뿐 아니라 오페라에 대한 식견도 높으셔서 ‘이런 분이 있나’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이운형 회장님을 생각하면 첫 만남 때 모습이 떠오릅니다.”

김의준 단장은 이운형 회장을 ‘당신 스스로에게는 그렇게 검소하면서도, 오페라에 대한 지원은 아낌없이 베풀 훌륭한 후원인’으로 회상한다. 이운형 회장은 2000년부터 13년 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변함없는 후원을 보내면서도 단 한 번도 드러내거나 나선 적이 없었다. 오페라단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북이나 팸플릿 등에 간단한 인사말을 부탁해도 한사코 손 사례를 치며 거절했다고 한다. 이운형 회장은 매 공연마다 500~700매의 티켓을 구매해 지인들과 직원들을 초대했으며, 누구나 오페라에 관심을 가지도록 앞장서 ‘오페라 전도사’로 불리기도 했다.



“이운형 회장님께서 작고하시고 열흘 쯤 지났을 때, 어느 기업인 한 분이 국립오페라단 후원회에 가입하겠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알고 봤더니 평소 이운형 회장님에게서 ‘국립오페라단 후원회에 가입해 보라’는 권유를 받았던 분이시더라고요. 그 때 ‘아, 회장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지만, 여전히 우리 오페라단을 지켜주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국립오페라단은 3월에 있었던 팔스타프 공연에서 이운형 회장님을 기리는 추모곡을 연주했고, 다가오는 5월에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공연을 열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운형 회장님을 기리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고인이 사랑한 오페라의 발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온유하고 인자한 리더이자 군자(君子)

SeAH Steel UAE 김석일 법인장

나는 1987년 세아제강의 전신인 부산파이프 포항공장에 입사했다. 회장을 처음 만난 것은 아마도 공장 시무식이나 조회에서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포항공장 근무 시절, 회장과 직접 대화를 나눈 적은 특별히 없었지만, 내가 기억하는 회장은 그 시절에도 참으로 온유하고 인자한 분이셨다. 일반적으로 ‘회장님’이라고 하면 근접하기도 어려운 위엄이라던가, 딱딱한 권위의식을 떠올리게 되지만, 회장은 마음 푸근한 우리네 아버지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이유는 항상 직원들을 칭찬하고 격려한 회장의 모습 때문일 것이다.

나는 회장을 ‘세아’라는 의미를 진심으로 실천하셨던 분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의미에 가장 가까운 분이라고 할까. 그리고 회장을 회상하면 항상 ‘군자(君子)’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송나라 주자(朱子)가 쓴 ‘근사록’이라는 책에서는 ‘군자는 관대하면서도 엄격함이 있어야 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매듭짓는 게 분명해야 하고, 꾸밈이 없으면서도 공손해야 하고,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면서도 혈기에 넘쳐 만용을 부리지 않아야 한다’ 등 군자의 덕목이 열거되어 있다. 주자가 말한 군자의 덕목들을 읽으며 이를 고루 갖춘 리더가 바로 우리 회장님이라는 점을 깨닫고 진심으로 감탄했다.

SeAH Steel UAE 준공식과 관련해서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가 있다. UAE는 7개 에미리트(부족국가)가 연합한 국가로, 각 에미리트는



2011년 4월 SeAH Steel UAE 준공식에서 Ruler가 커팅할 수 있도록 리본을 잡아주는 이운형 회장.
이운형 회장, Ras Al Khaimah의 통치자 Saud Bin Saqr al Qasimi(사우드 빈 사크르 알 카시미), 왕세자, UAE 한국대사관 권태균 대사

Ruler가 통치한다. 우리는 UAE 강관 투자에 대한 홍보와 Ruler와의 인연을 만들기 위해, 준공식에 Ras Al Khaimah의 Ruler를 초대했다. 하지만 의전에 앞서 몇 가지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창립기념식 테이프 커팅은 Ruler 혼자서 하고, 연설은 안 하며, 점심 식사는 안 된다 등이었다. 통치자 중심으로 형성된 UAE 특유의 문화 때문이었다. 주최자로서 납득하기 힘든 요구사항이 많아져 결정이 지연되자, 회장은 “난 괜찮아.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요.”라며 UAE의 독특한 문화를 모두 수용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전날 저녁이 되어서야 의전이 확정되어 리허설도 없이 긴박하게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 행사는 시상식 진행자가 바뀌게 된 일도 있었고, 회장의 영문 존칭이 잘못 인쇄되어 나가기도 했다. 크고 작은 실수들로 송구스런 마음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 행사가 끝나자 회장은 “그 동안 행사 준비하느라고 힘들었죠? 고생 많았어요.”라고 격려를 해주셨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붉어지는 눈시울.... 공장 건설과 행사 준비로 힘들었던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렸다. 우여곡절 끝에 행사는 잘 마무리되었고 느닷없이 Ruler Palace에서 전화 한 통이 왔다. Ruler가 준공식 초대에 대한 보답으로 회장님 이하를 자신의 궁궐로 초대한 것이다. 회장의 타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마음이 Ruler를 감동시킨 에피소드였다.

회장님, 왜 벌써 가셨습니까?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회장님께서 SeAH Steel UAE에 뿌린 씨앗이 중동 땅에 깊이 뿌리 내리고 사업의 과실이 알차게 영그는 모습을 못 보여드린 것이 못내 아쉽고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SeAH Steel UAE를 중동 최고의 강관회사로 키우겠습니다.



염화시중(拈華示衆)의 미소로 가르침을 주신 회장님

세아제강 조윤삼 상무

지금으로부터 29년 전인 1984년, 부산파이프(현 세아제강) 사옥이 서울 종로구 관철동에 있던 시절에 입사했다. 당시 나는 신입사원이었고, 또 부서 배치를 받자마자 거래처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맡아 주로 외근을 다녔기 때문에 이운형 회장의 얼굴을 볼 기회가 거의 없었다. 정확해진 않지만 회장을 처음 만난 것은 아마도 본사를 용산으로 옮겼던 1985년 이후가 아닐까 싶다. 회장은 말단 직원인 내게도 경어를 사용하며 웃는 얼굴로 대해주셨기 때문에 속으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난다. 그때 느낀 경외감과 따뜻함은 30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도 여전히 내 마음 깊이 남아 있다.

회장님과 오랜 시간 근무하며 ‘원래 그런 분’이라고까지 생각하게 된 것은, 회장님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해 감사하는 마음과 겸허한 자세를 보이셨기 때문일 것이다. 회장은 사람을 최우선으로 꼽으며 세아인들과 그 가족, 또 지구상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셨다. 그리고 회장은 ‘바람과 해님’이라는 동화처럼 부드럽고 온화한 마음이 더 많은 가르침을 준다는 것을 실천한, 참으로 보기 드문 분이라고 생각한다.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실수했을 때도 우리 회장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러지 말라고 하셨다. 미소 띤 얼굴로 “왜 그랬어~”라며.

20여 년 전 대리점 영업팀장이었던 시절, 급하게 회장의 호출을 받았다. “조 팀장, 적어볼래요?”라고 말을 꺼낸 회장은 건설업을 하는 친구에게서 강관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았으며, 최고 골든사이즈 3개 규격 수천 본이 필요한데 가능하겠냐고 물으셨다. 순간 머릿속으로 오만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당시 주택 200만호 건설사업과 맞물려 우리



2011년 4월 SeAH Steel UAE 준공식 참석 출장 중 이운형 회장, 김태욱 이사와 함께

회사의 주력제품이었던 강관은 언제나 공급이 부족할 정도로 큰 호황을 누렸다. 그 정도의 물량을 뺀다면 거래처와의 신뢰에 양금이 남을 것이고, 언젠가 시장이 악화되면 오히려 큰 손해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불황기에 입사해 어려운 시간을 겪어본 나로서는 거래처와의 신뢰를 깰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회장의 요청도 내게는 참 무거운 말씀이었다. 장장 한 시간을 고민한 끝에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어렵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는 선고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고개를 떨구고 서 있었다. 1분도 채 안 되는 짧은 정적 속에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그렇죠? 어렵죠? 내가 친구한테 이야기 할게요. 우리 팀장이 안 된다고 했다고” 그 순간 울컥하고 치미는 것은 회장님 성품에 대한 벽찬 감동! 그리고 이런 분이 대표로 계신 우리 회사는 정말 좋은 회사라는 생각! 부하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 고객 최우선이라는 가치를 선택한 회장의 그날의 일화는 오늘날까지 내가 회사에 충정(忠情)을 다해 일하게 된 기폭제가 되었다.

작년 말, 전 임원이 부부동반으로 회장님과 함께 오페라 갈라 공연을 감상하고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다. 회장은 “부인들의 훌륭한 내조가 있었기에 임원들이 중책을 잘 수행할 수 있었다”고 칭찬하며 부부가 앉은 테이블마다 오셔서 신랑에 대한 칭찬과 덕담을 아끼지 않으셨다. 각자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그 부부들만 알겠지만, 부인들도 회장의 인품을 직접 접했기에 갑작스런 비보에 애끓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으리라 생각한다.

언제나 염화시중(拈華示衆)의 미소로 세상을 읽고 백 마디 말보다 실천으로 교훈을 주셨던 이운형 회장님. 받은 것이 너무 많아 어떻게 보답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의 부름에 떠나시는 모습을 지켜보기가 이렇게 안타깝고 힘들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나 세아인 모두의 마음에 영원히 계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회장님께 받은 은혜를 앞으로 널리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데 나누겠습니다.



장학생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한 리더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사무국 고일섭 팀장



학창 시절부터 NGO와 같은 비영리 단체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2003년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에 입사했다. 회장님과 특별한 추억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곁에서 뵈 기회가 종종 있다 보니 배우고 느끼는 바가 많았다. 업무를 하다 보면 직접 재단 이사장인 회장님의 결제를 받아야 할 때가 있다. 하지만, 회장님 집무실 문을 여는 순간은 언제나 긴장감이 상승하기 마련이다. 떨리는 마음으로 노크하면 회장님은 “고 팀장 왔어요?”하고 언제나 웃는 얼굴로 맞이하고는 했다. 회장님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긴장감은 사라졌다.

재단 일을 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회장님을 존경하게 됐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감동받은 것은 학생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던 회장님의 마음이다. 장학생을 선발하거나 장학증서를 수여할 때, 한 기업의 회장이 직접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드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회장님은 매년 5월에 열리는 장학증서 수여식에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참석해 왔고, 학생들이 보내온 편지들은 밑줄을 그어 가며 즐겁게 읽었다. 어

린 학생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며 리더의 자세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다.

장학증서 수여식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 학생들 대부분이 격식을 갖춘 차림으로 자리하는데, 작년에 선발된 남학생 한 명이 밝은 색 상의에 나비 넥타이 차림으로 등장했다. 회장님은 그 남학생에게 “오늘 옷이 참 멋있어요. 예쁘네요”라고 칭찬하며 옷 매무새를 고쳐주었다. 회장님의 소탈한 모습에 장학생들과 함께 다같이 웃었던 기억이 난다.

회장님 덕분에 아내와 오페라를 보러 간 적이 있다. 1부 공연이 끝나고 중간 인터미션 시간에 복도에서 우연히 회장님과 만났다. 사람들이 북적거려서 목레만 하고 지나치려 했는데, 회장님이 먼저 알아보고는 “언제 결혼했어요? 아내가 어려 보여서 동생인 줄 알았어요”라며 농담을 건넸다. 또 “오늘 주인공은 누구인데 발성이 참 좋은 것 같다”며 오페라에 관한 여러 가지를 꼼꼼하게 알려주기도 했다. 덕분에 우리 부부는 난생 처음 본 오페라에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 수 있었고, 아내도 회장님의 인품에 깊이 감동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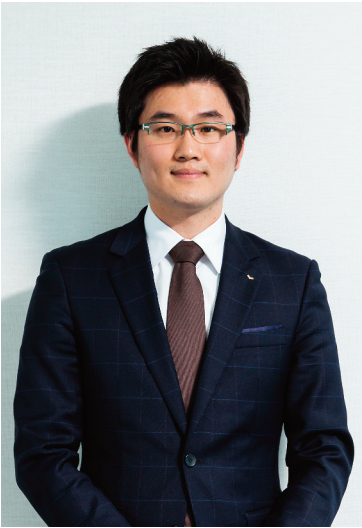
3월 5일 재단 정기 이사회에서 “수고 많았어요”라고 웃으며 격려해 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그 날 나는 인사가 마지막이 될 줄 몰랐습니다. 회장님께서 선물해 주신 ‘사랑의 묘약’이라는 오페라도, 따뜻한 인품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회장님의 큰 뜻을 잊지 않고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의 역할을 묵묵히 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 5월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한 이운형 회장

신입사원들을 위한 손님처럼 반겨주신 회장님

세아제강 인사운영팀 이충원 사원



이운형 회장님과 처음으로 만난 날은 2012 하반기 공채 신입사원 기본과정 입소식이 있었던 올해 1월 17일이다. 회장님은 42명의 신입사원들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님처럼 맞이해 주셨다. 긴장감으로 잔뜩 얼어있던 나는 회장님의 온화한 얼굴을 보는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편안한 기분을 느꼈다. 회장님은 내 예상과는 달리 평범하고 소탈한 모습이었다. 회장님께서 신입사원들이 겪었을 취업의 고충도 위로해주시고, 42명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인정한 표정으로 바라보셨기에 프로그램 내내 가슴이 뭉클했던 기억이 난다.

내가 입사 후 신기하게 생각했던 것은 회장님이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언론에 나오지 않으신다는 점이었다. 입사 초기에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회사와 회장님 자랑을 하고 다녔다. 하지만 선배들의 모습과 조직 문화를 직접 접하게 되면서, 우리 회사는 밖으로 드러내기보다 스스로를 낮추는 덕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게 됐다. 그리고 이런 조직 문화가 뿌리내린 데는 회장님이 평소애 감



2013년 1월 2012 하반기 공채 신입사원 기본과정 입소식에서 배지를 달아주는 이운형 회장

사와 겸허를 몸소 실천하셨기 때문이라는 점도 알게 됐다.

최근에 회사 업무로 세아제강의 구 사옥이었던 용산 사옥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창고를 관리하는 분을 만나게 됐다. 내가 세아제강 직원이라고 말씀드리자 관리인 분은 눈물을 참으며 회장님의 별세를 안타까워하셨다. 나는 그 순간 회장님을 모습을 직접 볼 수는 없겠지만, 회장님의 인품과 아름다운 마음은 여전히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모든 것이 빨리 변하고 빨리 잊혀지는 세태 속에서도 오랫동안 진한 향기로 남아계실 분…. 이운형 회장님은 그런 분이라고 감히 생각해본다.

회장님께서 별세하신 날 친구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충원아, 너희 회사 회장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기사가 올라왔는데 봤어?” 순간 머리를 크게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 불과 두 달 전 회장님의 건강한 모습을 뵈었는데… 짧은 시간 살아오며 가족 외 누군가의 비보에 이토록 슬펐던 적은 처음이었다. 신입사원인 나도 큰 충격을 받았는데 다른 선배들은 얼마나 상심이 클까… 걱정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회장님께 언제까지 슬퍼만 하는 모습만 보여드릴 수는 없기에 다시금 마음을 추스르고자 한다.

회장님, 처음으로 뵈게 된 신입사원 입소식 날이 회장님과의 마지막 만남이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갓 세상으로 나온 부족한 저를 세아인으로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별은 정말 슬프고 아프지만 회장님께서 일군 업적들은 또 다른 새싹을 틔워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훌륭한 선배님들과 힘을 모아 세아를 지키는 든든한 사원이 되겠습니다.

회장님 사랑합니다. 편히 쉬십시오.

모든 상실은 고통스럽다. 그러나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비할 고통이 어디 있을까.

존경하는 멘토이자 사랑하는 아버지를 여읜 슬픔을 덮어두고,

세아의 새로운 도전을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태성 상무와 이야기를 나누고 왔다.

회장님의 인생은 내가 살아야 할 삶

세아홀딩스 이태성 상무



슬픈 감정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던 시간

비보를 접했을 때의 상황과 당시 심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시간으로 일요일(3월 10일) 정오에 전화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받고난 직후는 눈물이 나올 겨를도 없이, 쇼크에 빠져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싸늘한 주검을 보는 순간 슬픔이 몰밀듯 밀려오더군요.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감정이 격해졌지만, 장남인 나까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우선 장례를 비롯해 눈앞에 닥친 일부터 차례대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내가 중심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수없이 되뇌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애도와 추모의 물결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정·재계를 비롯해 문화·체육계 등 수많은 분들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그 중 멀리서 한걸음에 달려온 이름 없는 분들의 조문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산의 어느 식당 주인, 경비 아저씨, 아이를 업고 온 아주머니... ‘이 많은 분들이 어떻게 회장님을 알고 계신 것일까?’ 싶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회장님께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눈물을 흘리는 그분들의 순수한 진심은 더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생전의 선행과 덕(德)이 이토록 광범위했다는 사실에 새삼 고개를 숙이며, 전국 각지에서 애도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지면으로나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회장님이 걸어온 인생은 내가 살아야 할 삶

이운형 회장이 강조한 가치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회장님은 “사람은 누구나 똑같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 철학은 회장님의 인품과 행동에서 그대로 배어나왔고, 더 나아가 경영철학으로까지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어린 시절, 회장님은 매일같이 제게 시원한 박카스를 사서 집에 돌아오도록 시키셨습니다. “학교 다녀왔습니까!”하고 집에 도착하면,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아주머니와 아저씨께 박카스를 전해드리는 것이 제일 먼저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어른이 된 지금 생각해 보면, 회장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조그만 것으로도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고용인은 일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더 잘 되도록 도와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에게 일을 지시할 때도 늘 미안해 하였고, 오히려 본인이 불편을 감수하는 쪽을 택하셨습니다. ‘감사’와 ‘겸허’, 이것이 바로 회장님이 강조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기업가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이운형 회장을 생각한다면?

회장님은 공감 능력이 매우 뛰어나셨고 언제나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배경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가진 장점을 발견해 극대화하는 방법을 아셨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임직원이 장점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받쳐주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으셨고, 타인을 빛나게 하기 위해 발전기의 역할을 자처하셨습니다. 제게 있어 회장님은 ‘앞으로 이 이상 존경할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분입니다. 회장님은 좋은 아버지이자, 자애로운 상사, 따뜻한 멘토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느낀 점은 회장님이라는 존재, 회장님과 함께한 삶 자체가 제게는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장님이 살고 가신 삶이 바로 제가 살고 싶은 삶이고, 제가 추구해야 할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운형 회장에게 전하고픈 말과 포부 등을 말씀해 주십시오.

삶과 일, 가족이 모두 연결되어 있었기에 회장님의 죽음은 제게 있어 너무나도 큰 혼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장님의 주검을 붙잡고 울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마음을 추스르고 보니, 답은 이미 다 나와 있더군요. 이제는 마음도 많이 가라앉고 편안해졌습니다. 다시 한 번 회장님께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씀을 전하며, 회장님의 인생에서 배운 ‘감사’와 ‘겸허’의 가치를 가장 낮은 자세에서 배우고 실천해 가고자 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이 먼저 잘 되어야 저도 잘 될 수 있음을 잊지 않고, ‘철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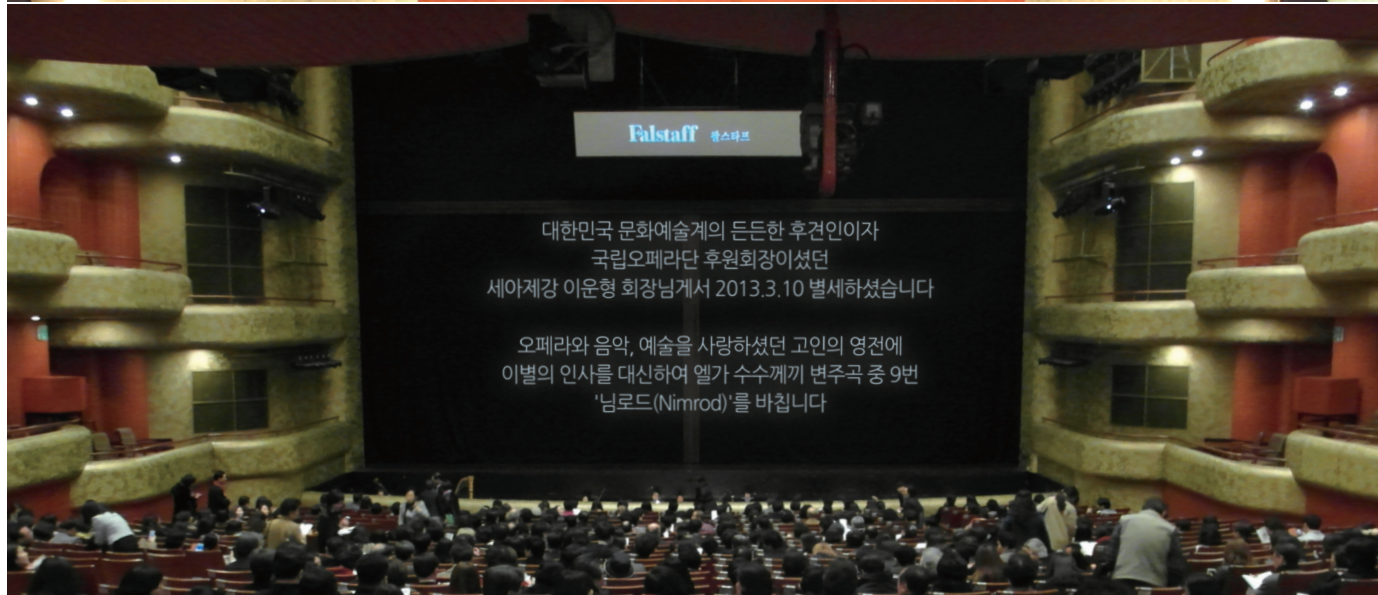
“ 회장님의 인생에서 배운
감사와 겸허의 가치를,
앞으로 가장 낮은 자세에서
배우고 실천해 가겠습니다. ”



‘님로드’를 위한 팔스타프

이운형 회장을 추모하며

글: 세아홀딩스 홍보파트 안현호



“오페라와 음악, 예술을 사랑하셨던 고인의 영전에 이별의 인사를 대신하여 엘가 수수께끼 변주곡 중 9번 ‘님로드(Nimrod)’를 바칩니다.”

3월 21일 목요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 이운형 회장을 추모하는 메시지와 함께 영국 작곡가 엘가의 수수께끼 변주곡 9번 ‘님로드’가 울려 퍼졌다. 베르디의 오페라 ‘팔스타프’의 막이 오르길 기다리던 관객들도 고개를 숙이고 함께 애도를 표했다. 불가리아 지휘자 줄리안 코바체프의 지휘 아래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님로드’ 선율이 극장 안을 수놓자, 내빈들은 이운형 회장과 함께한 추억을 회상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평소 이운형 회장이 즐겨 앉았던 오페라극장 2층 B블록 1열 5번 좌석은 국화와 백합으로 꾸민 조화만 홀로 남아 보는 이의 안타까움을 더했다.

다이에나 영국 왕세자빈의 장례식 추모곡으로도 연주된 님로드는 웅장한 스케일 속 서정적인 부드러움과 신비로운 분위기를 갖춘 명곡이다. 국립오페라단에서 님로드를 이운형 회장의 추모곡으로 선택한 이유는 아마도 이운형 회장의 부드러움 속 단단함을 표현하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인품을 기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국립오페라단은 이운형 회장의 아낌없는 후원에 감사를 표하는 의미로 팔스타프 공연 전 감사패를 전달했다. 국립오페라단의 한 담당자는 “이운형 회장은 오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신 아버지 같은 분”이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필자는 취재를 진행하는 매 순간마다 많은 감동을 받았다. 그 이유는 취재에 관련된

질문을 꺼내기도 전에,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이운형 회장 생전 인품에 대해 칭찬하는 말을 건네고,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렸기 때문이다. 이운형 회장이 남기고 간 향기는 인공적인 향이 아니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사람냄새’였다. 그는 세아가 추구한 ‘세상을 아름답게하는 가치를 말없이 행동으로 표현하며 사람냄새 나는 삶을 살았다. 그 어떤 고급 향수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고 은은한 이운형 회장만의 향기를 유산으로 남기고 떠났다.

수많은 사람들의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애도를 표했다. 그런데 감정을 추스르면 또 어디선가 슬퍼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영결식에서 낭독된 조사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 국립오페라단 임직원 일동이 보낸 ‘추모의 글’을 보는 순간 또다시 밀려오는 슬픔을 억누를 수 없었다.

“... 회장님의 깊은 사랑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 안타깝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별의 인사를 대신하여 오페라와 음악과 예술을 사랑하셨던 고인의 영전에 베르디의 마지막 작품 오페라 <팔스타프>를 바칩니다. 살아생전 사랑하셨던 음악과 함께 편안히 영면하시기를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 애간장을 끊어내는 듯한 애통한 마음을 추스르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운형 회장님,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름답게 살았던 삶

많은 혜택을 주면서도 변치 않는 '철과 같은 마음'으로
차가운 철에 온기를 더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한
66년 그의 인생은 아름다움 그 자체였습니다.
인자한 미소와 따뜻한 마음으로
'감사'와 '검허'를 몸소 보여준 보석 같은 삶
비록 이운형 회장은 떠났지만
우리는 오래도록 그를 기억할 것입니다.





“

‘정직’은 세아의 근간입니다. 마음 속에 바른 정(正)을 품고 사는 그런 세아인으로 계속 남아주길 바랍니다. 세아는 과거 고속 성장의 시대에 정직을 근간으로 살아왔고, 미래 대변환의 시대에도 정직을 근간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2012년 12월 故 이운형 회장 핵심가치 인터뷰)

”



正直

과거도 현재도 다가올 미래도
세아인이 근본으로 지녀야 할 덕목은 ‘정직’입니다.
평생을 감사와 겸허의 자세로 정직한 기업을 일구고자 했던
故 이운형 회장의 삶처럼
세아인 역시 바른 생각과 행동으로 기본을 지키며 살아야겠습니다.

세아의 첫 번째 핵심가치 ‘정직’
정직은 세아의 근간이자, 세아의 머리입니다.



산업 불모지의 땅 위에서 철강제조업을 일으켰던 ‘개척정신’
 세계시장에서 우수한 품질과 경쟁력으로 승부했던 ‘도전정신’
 선택과 집중, 합리성과 효율성으로 반세기에 다져진 ‘전문성’
 세아인에게 깊게 새겨진 DNA는 바로 ‘열정’과 ‘실력’입니다.

‘열정’이 세아의 가슴이라면,
 ‘실력’은 세아의 손과 발입니다.

熱情



實力

“
 과거 운이 7 기가 3의 시대였다면, 앞으로는 운 3 기 7의 시대입니다.
 이제부터 운이 아닌 기, 즉 ‘실력’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실력은 역량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기회와 위기를 포착하고,
 시장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로 실력입니다.

”
 (2012년 12월 故 이운형 회장 핵심가치 인터뷰)



세아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인재를 양성하다



제5기 챌린지 리더 수료식

세아의 미래를 이끌 인재 육성을 목표로 지난 2008년 도입된 챌린지 리더가 올해로 5기생을 배출했다. 1년 동안 진행된 과정을 무사히 마친 16명의 제5기 챌린지 리더 수료식이 4월 3일 오후 1시 세아타워에서 진행됐다.



챌린지 리더단 각 계열사에서 대리 및 과장급의 우수 인재를 선발해, 1년 동안 집중적인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개인별 능력을 향상시키고, 문제해결 능력과 경영감각을 갖춘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작된 챌린지 리더는 5기생 16명을 포함해 총 85명의 인재를 양성했다. 전 계열사에서 20명 남짓한 소수 인원을 선발해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교육에 임하는 챌린지 리더 개개인의 노력과 각오 역시 뜨겁다. 5기 챌린지 리더들은 지난 1년 동안 집합교육 참여와 문제해결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행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해외 선진 기업을 방문해 글로벌 비즈니스 감각과 식견도 넓

히는 기회를 가졌다. 수료식은 5기생 전원이 1년간 진행한 프로젝트 결과를 세아홀딩스 김진규 대표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 임원들 앞에서 평가받는 '문제해결 PT 발표'와 함께 진행됐다. 프로젝트 완성도와 질의응답 점수를 심사한 최종 평가 결과, '원가시스템 재구축'을 발표한 세아베스틸 회계팀 정현기 과장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자금흐름 프로세스 효율성 개선'을 발표한 세아특수강 재무파트 최경보 과장이, 공동 3위는 '열처리 공정 부적합 발생률 감소'를 발표한 세아특수강 품질보증팀 이창호 과장과 '폐기물 재활용률 증대 프로젝트 활동실적'을 발표한 세아제강 안전환경팀 노재언 대리가 수상했다.

세아홀딩스 김진규 대표는 축사에서 "1년 동안 노고한 챌린지 리더 5기 전원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수료를 축하했다. 이어 "수료식 후에도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해 진정한 '챌린지 리더'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세아의 핵심가치를 조직에 전파하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육을 진행한 세아홀딩스 옥지원 수석은 "5기생 모두가 최선을 다해 교육에 임했다"며 "챌린지 리더 뿐 아니라 다른 교육 프로그램도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니 세아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우수 발표자 미니 인터뷰



1위

세아베스틸 회계팀
정현기 과장

1위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 무척 기쁩니다. 오늘 발표한 '원가시스템 재구축'을 위해, 통합사육에 모인 각 계열사의 원가시스템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보고 싶은 포부가 생겼습니다. 챌린지 리더로 선발되었던 초심을 잊지 않고 세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위

세아특수강 재무파트
최경보 과장

비즈니스 문제해결, MBA, 계열사 견학, 해외 기업 탐방, PT스킬 등 챌린지 리더의 다양하고 심층적인 교육을 통해 역량과 시야를 한 단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늘 새로운 마음,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일하겠습니다. Change! Challenge!! Creativity!!!



공동 3위

세아특수강 품질보증팀
이창호 과장

챌린지 리더 교육으로 PT 올림증 극복과 함께 항상 도전하는 자세를 몸에 익힐 수 있었습니다. 이제 현장으로 돌아가 교육에서 배웠던 내용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겠습니다. 5기 동기생 모두 조직에서 꼭 필요한 인재, 성과를 내는 인재가 되길 응원합니다!



공동 3위

세아제강 안전환경팀
노재언 대리

다양한 교육을 통해 하나의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생각하고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미니 MBA 과정은 생소한 단어 때문에 힘들었지만 돌아보면 가장 뿌듯하고 유익했던 교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Best Practice의 마인드로 회사생활에 임하겠습니다.

CHALLENGE

LEADER

세아네트웍스가 태양광 에너지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했다. 올해 2월 세아제강과 세아베스틸 지붕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의 본격 가동으로 연간 8,402MW의 전력 생산이 가능해졌으며, 연간 약 3,500톤의 이산화탄소(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글 : 세아네트웍스 전략사업팀 이수곤 차장

태양광 발전 시스템 가동 시작한 세아네트웍스,



세계적 화두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한국은 세계 8위

화석 에너지 사용으로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면서 기후 문제와 에너지 생산이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내놓은 ‘세계 에너지 전망 2009’와 ‘이산화탄소 하이라이트’라는 제목의 두 보고서를 보면, 2008년까지 세계 9위였던 우리나라 이산화탄소(온실가스) 배출량은 2009년에는 한 단계 더 상승한 세계 8위로 조사됐다. 탄소 배출량 감소와 청정 에너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국내에서도 저탄소 청정 에너지 비율을 점점 높여가는 추세다. 특히 태양광, 풍력과 같은 신·재생 청정 에너지는 IT, BT산업과 함께 21세기를 이끌 신성장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 기관을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태양광 설비를 건물에 설치하는 등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탄소 제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다

세아네트웍스, 유휴 공간을 활용해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란 태양전지(Solar Cell)를 이용해 태양광을 전기로 직접 변환하는 친환경 발전 시스템이다. 세아네트웍스는 세아제강과 세아베스틸 지붕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해 올해 2월부터 본격적인 태양광 발전소 가동에 들어갔다. 세아네트웍스의 태양광 발전소는 유휴 공간인 공장 지붕을 활용해 부지 활용도를 높인 것이 특징으로, 세아제강 군산 판재공장과 강관공장, 순천공장,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철강소재와 함께 신·재생 청정 에너지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세아네트웍스의 태양광 발전소는 연간 8,402M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생산된 전력은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거래된다. 전력 거래로 발급된 신·재생 에너지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는 12년간 한국동서발전에 판매되며, 전력 판매수익은 연간 약 32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HOT ISSUE——Renewable Energy

“지붕 타고 태양까지” 에너지 생산 기업을 향한 날갯짓

공장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는 연간 약 3,500톤 규모의 이산화탄소를 감축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연간 소나무 70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로, 세계적인 화두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에 세아네트웍스의 태양광 발전소가 일조를 하는 셈이다. 세아네트웍스는 태양광 발전소 준공으로 연간 32억 원의 전력 판매수익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 생산 기반 체계를 확보했으며, 계속해서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이산화탄소 감소에 대한 투자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세아베스틸이 제21회 국제 금형 및 관련 기기전(INTERMOLD KOREA 2013)에 참가했다. 세아베스틸은 전시회 기간 동안 부스 홍보와 세미나를 진행해 특수강 생산 노하우를 바탕으로 생산하는 고품질 플라스틱 금형강 소재를 집중 소개했다.

글 : 세아베스틸 주단기술팀 노영석 대리

세아베스틸, 제21회 국제 금형 및 관련 기기전 (INTERMOLD KOREA 2013) 참가



화려하게 막을 연 제 21회 국제 금형 및 관련 기기전

한국 금형의 힘을 확인하고 세계 금형산업의 미래를 만나는 제21회 국제 금형 및 관련 기기전(INTERMOLD KOREA 2013)이 3월 12일부터 5일간 일산 KIN-TEX 전시장에서 개최됐다. 국제 금형 및 관련 기기전은 독일의 EUROMOLD, 중국 DIE & MOULD CHINA와 함께 세계 3대 글로벌 금형 전시회로 인정받으며 그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일본, 독일, 미국, 스위스 등 세계 20개국 365개 업체 참가, 70,000명이 1,450부스를 관람하는 등 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되며 막을 내렸다. 또한 정부 지원 아래 KOTRA 및 관련 기관들이 해외 유망 바이어 120개 사를 초청, 수출 상담을 주선했다. 전시회 기간 동안 실질적인 계약과 구매가 이루어졌다.

세아베스틸의 금형강 제품을 세계 시장에 알리다

세아베스틸에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다

세아베스틸은 이번 전시회에 참가하면서 New Process(VCD) 조업방법을 적용해 금형강의 품질을 한층 업그레이드한 SP4A와 SP4MA 강종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야심차게 준비한 HH(High Hard) Grade 고경면용 플라스틱 금형강 출시를 시장에 소개했다. 세아베스틸의 SP4A와 SP4MA, HH Grade 고경면용 플라스틱 금형강 제품에 대한 기술 현황 및 품질에 대한 세미나는 금형 업체와 바이어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참석하지 못한 관계자들을 위한 추후 세미나 일정 문의와 발표 자료 요청이 쏟아지는 등 세아베스틸의 금형강 제품에 대한 관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짐작할 수 있었다. 세아베스틸은 전시회 기간 동안 부스 홍보를 진행하고 안내 책자를 배포함으로써, 고품질 금형강 소재를 합리적 가격으로 생산·공급하는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HOT ISSUE — INTERMOLD KOREA

세아베스틸, 금형강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다

국제 금형 및 관련 기기전 참가를 통해 자체 개발한 금형강 신제품을 선보인 세아베스틸은 특수강으로 인지도가 높은 세아베스틸이 특수강 생산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품질 금형강을 생산하고, 공급 다변화에 성공했다는 점을 알리며 국내외 금형강 유통업체, 금형 제작사, 가전사, 자동차 메이커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세아베스틸은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 자료 업데이트, 직접 찾아가는 마케팅 활동 등으로 금형강 제품의 인지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또한 전시회 이후 생산량 증대와 품질 개선 활동도 추진하여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단조 업계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그룹뉴스
러시아 EN+ 그룹과 MOU 체결



세아홀딩스가 4월 4일 러시아 EN+그룹과 물리브덴 광산에 대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세아홀딩스 이태성 상무와 세아 M&S 마정락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MOU 체결은 물리브덴 채광 및 가공에 관한 논의도 함께 추진됐다. 두 법인은 전략적인 협업을 통해 물리브덴과 철강 이외의 신규 사업에도 진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두 회사는 공동의 이윤 창출을 위한 시너지를 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세아제강
포항공장 2012년 혁신활동 우수 부문 포상



포항공장은 3월 20일 2012년 혁신활동 우수 부문 포상을 시행했다. 우수 소그룹은 중경1공장 명품 소그룹이, 혁신맨은 소경1공장 이상계 사수와 소경2공장 최병원 사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부동반 2박3일 국내 연수기회가 제공됐다.

창원공장 안전보건환경 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창원공장은 2월 14일 OHSAS 18001 인증과 ISO 14001 인증을 동시에 취득했다. OHSAS 18001은 재해를 유발하는 요인을 없애고, 건강



한 업무환경 조성에 대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이다. 창원공장은 인증 취득을 계기로 급변하는 환경에 한층 더 신속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군산공장 요양시설 봉사활동 참여



군산공장은 3월 23일 사랑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22명의 직원들은 군산시 서수면에 위치한 노인 요양시설 ‘함께하는 공동체’를 방문해 난방용 화목 절단과 묘목 농원의 보수 및 청소를 진행했다. 군산공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찾아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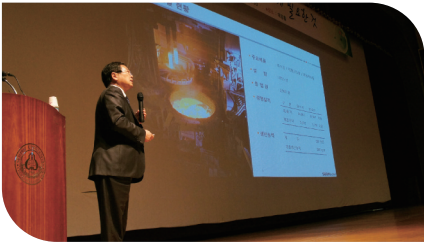
순천공장 예광마을 봄맞이 대청소 참여



순천공장이 4월 6일 1분기 봉사활동에 나섰다.

20명의 봉사단원들은 순천시에서 운영하는 양로원 ‘예광마을’을 방문해 배식소, 주방, 식당, 주거 시설 등 봄맞이 대청소를 진행했다. 순천공장은 그동안 지역 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2013년 2분기에는 ‘예광마을’과 자매결연을 통해 이웃사랑 실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세아베스틸
이승휘 부회장 세종대학교 특별 강연



세아베스틸 이승휘 부회장이 3월 12일 서울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신입사원이 가져야 할 자세’를 주제로 특별 강연회를 열었다. 세종대학교가 주최하는 특별 강연은 사회 각 분야에서 창의성과 리더십이 탁월한 기업인이나 각계 저명인사들을 초빙해 실시하고 있다. 이승휘 부회장은 취업을 앞두고 있는 약 1,100명의 세종대 학생들과 소통하는 형식으로 강연을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고객만족 마인드 함양 교육 실시



세아베스틸이 1월 17일 특수강 사무기술직 종사자와 기장 106명을 대상으로 ‘고객만족 마인드 함양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고객만족 마인드를 함양하고, 고객 지향적인 업무 수행 및 성

과 창출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교육을 주관한 조오영 이사는 “전 직원이 고객만족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기회가 되었다”며, “향후, 고객과의 의사소통 채널을 넓힐 것”이라고 전했다.

희망나눔 성금 기부



세아베스틸 직원들이 급여 일부와 성금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했다. 세아베스틸은 2012년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희망나눔’ 행사의 결실로 총 1억 2천만 원의 모금에 성공했다. 본 성금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는 군산지역 중·고등학생 장학금, 경로당 효도잔치, 각종 시설보수 및 물품 지원 등에 쓰였다. 세아베스틸은 모금 행사 외에도 봉사동호회를 통한 배식봉사, 재능기부 등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아베스틸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개최



세아베스틸이 2월 21일 지역아동센터 교사와 아동 163명을 초청해 문화체험 행사를 열었다. 봄방학을 맞이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영화 관람, 점심식사, 근대화 역사박물관을 견학하며 체험하는 가운데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은 아이들을 위해 유익한 자리를 마련해준 세아베스틸에 고마움을 전했다. 세아베스틸은 미래의 주역인 지

역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문화나눔 활동에도 관심을 보낼 계획이다.

세아특수강
포항공장, 노동조합 설립 기념식 개최



포항공장이 3월 21일 공장 강당에서 제24주년 노동조합 설립 기념식을 개최했다. 임원, 부서장, 조합원들은 기념식에서 노사가 한마음이 되어 불안정한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것을 다짐했다. 유을봉 대표는 “24년 동안 노사분쟁 없이 회사의 입장을 생각해주시는 협력적 자세가 있었기에 어려운 여건과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다”며, 건전한 노사문화를 유지하여 더욱 발전하는 세아특수강이 될 것을 당부했다.

사랑의 동전 모으기 기부



세아특수강이 직원들의 참여로 모은 ‘사랑의 동전 모으기 100원의 기적’ 저금통 약 80개를 2월 26일 NGO 단체인 굿네이버스에 기부했다. ‘사랑의 동전모으기 100원의 기적’은 굿네이버스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전세계의 불우아동 지원을 위한 범국민적 모금 활동이다. 세아특수강은 2007년부터 매년 행사에 참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사회복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다.

세아 ESAB
모범 근로자 표창 수상



세아 ESAB 홍석근 사원이 2월 28일 창원호텔 동백홀에서 열린 경남경영자총연합회 정기총회에서 모범 근로자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에는 조진래 경상남도 정부부지사,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회원사 대표 등 약 180명이 참석했다. 본 표창은 경남경영자총협회가 산업현장에서 근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모범 근로자를 치하하기 위해 준비한 상이다.

아동발달상담 봉사활동 참여



세아 ESAB 봉사모임인 ‘세아드림’이 2월 16일 경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아동발달상담(언어집단치료) 봉사활동에 나섰다. 봉사단원들은 미술활동,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발달장애아동의 치료 활동을 도왔다. 세아 ESAB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2013년에도 불우이웃돕기, 목욕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CBS 교육 실시



세아 ESAB은 3월 21일 한국 폴리텍 VII대학 창원캠퍼스에서 미국 Colfax사의 경영 툴(tool)인 CBS(Colfax Business System) 교육을 실시했다. 세아 ESAB 사무기술직 전 직원 및 각 계열사 기획·혁신 부서 팀장 등 약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교육에서는 CBS에 대한 오버뷰(Overview), 린(Lean) 활동, 문제해결기법 등이 소개됐다. 참석자들은 “성공적인 CBS 실행으로 경영혁신과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세아 M&S

노사파트너십 증진 프로그램 지원 사업자 선정



세아 M&S가 3월 19일 노사파트너십 증진 프로그램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됐다. 세아 M&S는 국가지원금과 자체예산을 활용해 노사관계 안정화, 좋은 일터 만들기, 원하청 공생발전에 매진할 전망이다. 세아 M&S는 노사파트너십 증진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통해 발전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노사 간 상생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세아로지스

47회 납세자의 날 관세청장 표창 수상



세아로지스 인천물류센터가 3월 4일 제47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인천본부세관으로부터 관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인천본부세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임일열 센터장이 참여한 대표이사를 대신해 수상했다. 여영수 인천본부세관장은 “지난해 유럽 재정위기와 환율의 급락 등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납세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무재해 9배수 달성 인증패 수상



세아로지스는 3월 15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무재해 9배 인증패’를 받았다. 세아로지스가 달성한 무재해는 2005년 9월 5일부터 2013년 1월 15일까지 약 7년(2,418일)에 걸쳐 이룩한 성과이다. 한편, 업무지원팀 이지훈 대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중량물건인집게 특허를 발명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 세아로지스는 2013년에도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무재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세아홀딩스

입사

문영종 법무팀
김병관 인사기획파트
최철웅 인재개발파트
이윤아 홍보파트
최광식 경영지원파트
유종욱 자원개발파트
유창균 감사파트(전입)
이미정 재무관리파트
심한구 인사기획파트
박설화 법무파트
황혜림 경영지원파트

결혼

박대식 자원개발파트

조의

신상호 인재경영팀

세아제강

입사

허정은 수출1팀
김진영 포항 생산기술팀
최희정 창원 품질경영팀
류재점 광주영업소

출산

서광수 자재팀
이성수 군산 생산2팀
임창원 포항 생산1팀
박광진 포항 생산기술팀
임채훈 군산 생산2팀
이정훈 강관2 생산팀

조의

최충식 포항 관리담당임원(모친)
이찬호 포항 업무지원팀(부친)
이상일 포항 업무지원팀(모친)
안병석 포항 생산1팀(장모)
정영철 포항 생산1팀(부친)
백동규 포항 생산2팀(부친)
박경진 포항 생산2팀(장모)
박경남 창원 생산팀(부친)

세아베스틸

결혼

최우성 시험연구그룹
최대로 특)품질보증팀
박준석 특)품질보증팀
황강석 제강팀
전희선 인재개발팀
박종원 단)생산관리팀
박성근 제강설비팀
차경섭 부산영업팀
박미림 수출팀
서동욱 설비지원팀
박동근 제강팀
노승기 대형압연팀
황수민 연주팀
안지혜 업무지원팀
조광현 제강팀

조의

김창규 연주팀(모친)
국중문 특)생산관리팀(부친)
국중만 에너지관리팀(부친)
국중남 소형압연팀(부친)
김선규 노동조합(부친)
이광로 단조/기술(모친)
김형우 인재운영팀(부친)
조기찬 지원본부(부친)
이종찬 소형압연팀(부친)
손채엽 대형압연팀(장모)
김훈 대형압연팀(장인)
정진희 대형압연팀(장인)
최석년 대형압연팀(장인)
마훈민 소형압연팀(모친)
김동수 연주팀(장인)
김용현 서울영업팀(모친)
이용문 제강팀(장인)
김옥섭 압연설비팀(장인)
송산성 제강팀(계장)
최선호 자재관리팀(부친)

세아특수강

입사

김수연 기획인사파트
하종진 부산영업소

결혼

김경우 재무파트
최성석 포항 생산팀

출산

배영식 회계파트
이재우 포항 업무지원팀
김효민 포항 생산팀
신병호 포항 생산팀

조의

양성용 수주관리팀(조부)
김오용 포항 생산팀(장모)
유홍일 포항 생산팀(장인)

한국번디

입사

김해원 서울 경영관리팀
주수정 평택 업무지원팀
마진형 평택 영업2팀

결혼

노민한 평택 생산팀

출산

최성운 서울 구매팀
최대국 광주 생산팀

조의

한성환 평택 생산팀(백부)
윤승면 평택 외주관리팀(숙부)
이명진 광주 생산팀(장모)
이제혁 광주 생산팀(부친)
조기훈 광주 생산팀(백숙부)

세아 ESAB

결혼

진재규 국내영업팀
정용환 생산팀

출산

황성욱 생산팀
김건태 제품개발팀

조의

나용봉 생산팀(장인)
권영환 품질경영팀(부친)

세아메탈

출산

김영수 원주 품질경영팀

세아 E&T

결혼

형순하 터보 기술팀

출산

동기훈 화공 영업팀
임채훈 화공 생산1팀
허종길 터보 생산반

조의

장경수 화공 생산팀(장인)
손영훈 터보 연구개발팀(부친)
윤명중 플랜트 기술고문(형제)

세아로지스

입사

김철 인천물류센터

결혼

이상근 부산영업팀
이효인 국제물류팀

해덕스틸

입사

박수지 광주영업팀

결혼

장남규 당진공장



故 이운형 회장을 추모합니다

벚나무가 꽃망울을 터트리는 봄입니다.
〈세아가족〉편집실은 완연한 봄기운도, 비통한 심정도 느낄 겨를 없이
故 이운형 회장 추모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행적을 따라 과거로 여행을 떠나고, 그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만나가며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그리고 그와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떠난故 이운형 회장을 진심으로 추모하며
삼가 부족한 이 책을 바칩니다.



〈세아가족〉독자의견

김기욱 매달 사보를 읽고 있지만 매 호마다 특색 있는 모습, 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김재윤 사보를 읽으면서 세아그룹의 다양한 활동과 제도, 기업문화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고객만족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세아그룹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찬우 2012년을 마무리하고 2013년을 시작하는 첫 사보에 다양한 이야깃거리가 많아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읽었네요. 세아그룹의 2013년도 작년처럼 행복한 일만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호 퀴즈 정답자

김기욱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8번지
김재윤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이찬우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황소빈	부산시 연제구 거제2동
이상훈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홍경석	대전시 동구 성남동
김아록	서울시 중구 남학동
홍용식	대전시 중구 유천1동
김성우	춘천시 근화동
서동안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독자의견을 보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세아가족〉사보기자

전태원	세아제강 인사운영팀(본사)	이형호	세아특수강 업무지원팀(본사)	강미화	세아메탈 부산영업팀
최영훈	세아제강 업무지원팀(포항)	이상은	세아특수강 업무지원팀(충주)	이상기	세아 E&T 화공사업지원팀
이인호	세아제강 업무지원팀(창원)	김해원	한국번디 경영관리팀(서울)	김민구	세아 M&S 서울사무소
선민석	세아제강 업무지원팀(군산 강관공장)	박수연	한국번디 경영관리팀(평택)	이지훈	세아로지스 업무지원팀
이정화	세아베스틸 기획팀	이송이	한국번디 품질경영팀(광주)	권용재	해덕스틸 경영지원팀
김동기	세아특수강 기획인사파트(서울)	진승래	세아 ESAB 경영지원팀	김승렬	드림라인 사업기획팀



당신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스승처럼

한없이 자애롭고 따뜻했던故 이운형 회장님

당신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편히 쉬십시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세아가족〉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세아그룹의 사보입니다.

※ 연락처를 꼭 기입해주세요.



보내는 사람

세아가족

우표

이름

주소

전화번호

□□□-□□□

1947-2013

故 이운형 회장 추모 특집

03+04

MAR + APR 2013

받는 사람

SeAH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45 세아타워 30층
〈세아가족〉 편집실

1 2 1 - 8 4 1

■ 참여하고 싶은 칼럼 혹은 추천하고 싶은 사우

.....

.....

.....

.....

.....

.....

.....

.....

.....

.....

.....

.....

.....

.....

.....

■ 사보를 읽은 소감

.....

.....

.....

.....

.....

.....

.....

.....

.....

.....

■ 가장 좋았던 칼럼

.....

.....

.....

.....

.....

.....

.....

.....